

해제



그렇건만 나에게는 옷이 없었다. 아내는 내게는 옷을 주지 않았다. 입고 있는 코르덴 양복 한 옷 않은 아내와 대조. 아내에게 총속된 '나' / 인칭 시점. 내면 고백 구조
별이 내 자리옷이었고 통상복과 나들이옷을 겹한 것이었다. 그리고 하이넥의 스웨터가 한 조각
잠잘 때 입는 옷
사철을 통한 내 내의다. 그들은 하나같이 다 빛이 겹다. 그것은 내 짐작 같아서는 즉 빨래를
시각적 이미지로 부정적인 상황 환기
될 수 있는 데까지 하지 않아도 보기 싫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한다. 나는 허리와 두
온이 겸은 이유에 대한 '나'의 추측
가랑이 세 군데 다— 고무 밴드가 끼워 있는 부드러운 사루마다*를 입고 그리고 아무 소리 없이
잘 놀았다. '나'의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줌

어느덧 손수건만 해겼던 별이 나갔는데 아내는 외출에서 돌아오지 않는다. 나는 요만 일에도
시간의 경과
좀 피곤하였고 또 아내가 돌아오기 전에 내 방으로 가 있어야 될 것을 생각하고 그만 내 방으로
아내의 눈치를 보며 아내에게 총속된 '나'의 모습
전너간다. 내 방은 침침하다. 나는 이불을 뒤집어쓰고 낮잠을 잔다. 한 번도 겸은 일이 없는 내
무기력한 '나'의 모습
이부자리는 내 몸뚱이의 일부분처럼 내게는 참 반갑다. 잠은 잘 오는 적도 있다. 그러나 또 전신
이부자리를 자신의 몸과 동일시 → 무기력한 '나'의 모습
이 까칫까칫하면서 영 잠이 오지 않는 적도 있다. 그런 때는 아무 제목으로나 제목을 하나 골라
서 연구하였다. 나는 내 좀 축축한 이불 속에서 참 여러 가지 발명도 하였고 논문도 많이 썼다.
시간을 보내기 위한 무의미한 행동 => 실체가 아닌 공상
시도 많이 지었다. 그러나 그것들은 내가 잠이 드는 것과 동시에 내 방에 담겨서 철철 넘치는
그 흐느흐느한 공기에 다— 비누처럼 풀어져서 온데간데가 없고 한참 자고 깬 나는 속이 무명
모든 생각이 사라지는 허무함
헝겊이나 메밀껍질로 땅땅 찬 한 덩어리 베개와도 같은 한 별 신경이었을 뿐이고 뿐이고 하였
다.) => 감각적이고 비유적인 표현으로 무의미한 일상을 보여줌

그러기에 나는 빈대가 무엇보다도 싫었다. 그러나 내 방에서는 겨울에도 몇 마리씩의 빈대가
무의미하고 무료한 일상을 훔드는 존재
끊이지 않고 나왔다. 내게 근심이 있었다면 오직 이 빈대를 미워하는 근심일 것이다. 나는 빈대
에게 물려서 가려운 자리를 피가 나도록 긁었다. 쓰라리다. 그것은 그윽한 쾌감에 틀림없었다.
나는 혼흔히 잠이 든다.



나는 그러나 그런 이불 속의 사색 생활에서도 적극적인 것을 궁리하는 법이 없다. 내게는 그 적극적인 것을 궁리하지 않는 이유 : 아내의 꾸지람

럴 필요가 대체 없었다. 만일 내가 그런 좀 적극적인 것을 궁리해 내었을 경우에 나는 반드시

내 아내와 의논하여야 할 것이고 그러면 반드시 나는 아내에게 꾸지람을 들을 것이고— 나는 꾸
아내에 의해 통제된 삶

지랄이 무서웠다느니보다도 성가셨다. 내가 제법 한 사람의 사회인의 자격으로 일을 해 보는 것
도, 아내에게 사설 듣는 것도.

나는 가장 게으른 동물처럼 게으른 것이 좋았다. 될 수만 있으면 이 무의미한 인간의 탈을 벗
자발적으로 소극적 존재가 되는 것을 선택
어 버리고도 싶었다. 인간됨초자 거부하고 싶음

나에게는 인간 사회가 스스러웠다*. 생활이 스스러웠다. 모두가 서먹서먹할 뿐이었다.

(중략)

여러 번 자동차에 치일 뻔하면서 나는 그래도 경성역을 찾아갔다. 빈자리와 마주 앉아서 이
서울역(외출 장소)
쓰디쓴 입맛을 거두기 위하여 무엇으로나 입가심을 하고 싶었다.

의율함과 혼란의 감정
커피— 좋다. 그러나 경성역 홀에 한 걸음을 들여놓았을 때 나는 내 주머니에는 돈이 한 푼도
없는 것을 그것을 깜빡 잊었던 것을 깨달았다. 또 아뜩하였다. 나는 어디선가 그저 맥없이 머뭇
아내에게 돈을 주고 온 것을 잊은 상황. 정상적인 사회 생활이 불가능한 존재
머뭇하면서 어쩔 줄을 모를 뿐이었다. 얼빠진 사람처럼 그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

방황하는 '나'의 모습
나는 어디로 어디로 들입다 쏘다녔는지 하나도 모른다. 다만 몇 시간 후에 내가 미쓰꼬시 옥
'나'의 지난 삶을 돌아보는 공간
상에 있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거의 대낮이었다.

나는 거기 아무 데나 주저앉아서 내 자라 온 스물여섯 해를 회고하여 보았다. 몽롱한 기억 속
'나'의 나이
에서는 이렇다는 아무 제목도 불거져 나오지 않았다.

의미 있는 기억이 없음 → 무의미한 삶을 삶
나는 또 내 자신에게 물어보았다. 너는 인생에 무슨 욕심이 있느냐고. 그러나 있다고도 없다
삶의 목표

고도, 그런 대답은 하기가 싫었다. 나는 거의 나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기조차도 어려웠다.

자아에 대한 인식 상실. 정체성 혼란
허리를 굽혀서 나는 그저 금붕어나 들여다보고 있었다. 금붕어는 참 잘들도 생겼다. 작은 놈
굳은 의식을 깨워 줌
은 작은놈대로 큰 놈은 큰 놈대로 다— 싱싱하니 보기 좋았다. 내리비치는 오월 햇살에 금붕어
들은 그릇 바탕에 그림자를 내려뜨렸다. 지느러미는 하늘하늘 손수건을 흔드는 흉내를 낸다. 나
지느러미의 움직임 비유 = 나의 의식의 꿈틀거림
는 이 지느러미 수효를 헤어 보기도 하면서 굽힌 허리를 좀처럼 펴지 않았다. 등허리가 따뜻하

다.) => 외부적 대상이나 자극으로 촉발된 '나'의 정서와 인식을 감각적으로 표현
금붕어를 통해 무의식이 꿈틀거리기 시작한 '나'

나는 또 회탁의 거리를 내려다보았다. 거기서는 피곤한 생활이 똑 금붕어 지느러미처럼 흐느
회색빛의 탁한 거리(도시의 피로)
흐느 허비적거렸다. 눈에 보이지 않는 끈적끈적한 줄에 엉켜서 헤어나지들을 못한다. 나는 피로
와 공복 때문에 무너져 들어가는 몸뚱이를 끌고 그 회탁의 거리 속으로 섞여 들어가지 않는 수
도 없다 생각하였다. → 피곤한 현대인들의 삶과 그로부터 헤어나올 수 없는 현대 사회의 속성

나서서 나는 또 문득 생각하여 보았다. 이 발길이 지금 어디로 향하여 가는 것인가를…….

그때 내 눈앞에는 아내에 대한 생각이 나의 의식 속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음을 드러.
아내의 모자이가 벼락처럼 내려 떨어졌다. 아스피린과 아달린.

우리들은 서로 오해하고 있느니라. 설마 아내가 아스피린 대신에 아달린의 정량을 나에게 먹
아내가 몰래 수면제를 먹였는가?
여 왔을까? 나는 그것을 믿을 수는 없다. 아내가 대체 그럴 까닭이 없을 것이니.

그러면 나는 날밤을 새우면서 도적질을, 계집질을 하였나? 정말이지 아니다.

서로 맞지 않는 부부 관계 상정
우리 부부는 숙명적으로 발이 맞지 않는 절름발이인 것이다. 내나 아내나 제 거동에 로직(논
'나'와 아내는 개선될 수 없는 비정상적 관계
리)을 붙일 필요는 없다. 변해(辯解)할 필요도 없다. 사실은 사실대로 오해는 오해대로 그저 끝
말로 풀어 밝힐
없이 발을 절뚝거리면서 세상을 걸어가면 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을까?
절름발이로 사는 수밖에 없다 → 관계를 개선할 수 없음
—그러나 나는 이 발길이 아내에게로 돌아가야 옳은가 이것만은 분간하기가 좀 어려웠다. 가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한 회의. 주저함, 정신적 방황
야 하나? 그럼 어디로 가나?

(이때 뚜—하고 정오 사이렌이 울었다. 사람들은 모두 네 활개를 폐고 닦처럼 푸드덕거리는 것
'나'를 각성하게 하고 새로운 태도로 전환하게 해주는 계기 활기 넘치는 모습
같고 온갖 유리와 강철과 대리석과 지폐와 잉크가 부글부글 끓고 수선을 떨고 하는 것 같은 찰

나, 그야말로 현란을 극한 정오다. = > 감각적 이미지로 정오라는 시간을 형상화
오전과 오후의 경계. 새로운 세계로 탈출하는 시간
나는 불현듯이 겨드랑이가 가렵다. 아하 그것은 내 인공의 날개가 돋았던 자국이다. 오늘은
삶의 희망이 꿈틀거림. 자의식 회복 과거의 열정, 이상
없는 이 날개, 머릿속에서는 희망과 야심의 말소된 페이지가 딱서너리(사전) 넘어가듯 번뜩였다.
지워 없어진 잊었던 기억, 희망, 야심이 되살아남
나는 걷던 걸음을 멈추고 그리고 어디 한번 이렇게 외쳐 보고 싶었다.

날개야 다시 돌아라.

삶의 의미와 자아를 찾고 싶음

날자. 날자. 날자. 한 번만 더 날자꾸나.

한 번만 더 날아 보자꾸나.

- 이상, 「날개」 -

*사루마다: 일본의 남성용 속바지. 허리에서 허벅지까지 덮는 속옷.

*스스롭다: 수줍고 부끄러운 느낌이 있다.



핵심 정리

- 갈래: 단편 소설, 심리 소설
- 성격: 자기 고백적, 상징적
- 주제: 무력한 삶과 분열된 자아상에서 벗어나려는 존재의 의지
- 시점: 1인칭 주인공 시점
- 배경: 시간적-1930년대, 공간적-서울(경성)
- 특징
 - 의식의 흐름 기법을 사용해 인물의 내면세계를 드러냄.
 - 상징적 소재로 주제 의식을 드러냄.
 - 공간의 대조를 통해 인물 간 차이를 보여 줌.

전체 줄거리

지식 청년인 ‘나’는 놀거나 밤낮없이 잠을 자면서 아내에게 사육(飼育)된다. ‘나’는 몸이 건강하지 못하고 자의식이 강하며 현실 감각이 없다. 오직 한번 아내를 차지해 본 이외에는 단 한 번도 아내의 남편이었던 적이 없다.

아내가 외출하고 난 뒤에 아내의 방에 가서 화장품 냄새를 맡거나 돋보기로 화장지를 태우면서 아내에 대한 욕구를 대신한다. 아내는 자신의 매음(賣淫) 행위에 거추장스러운 ‘나’를 별 안드는 방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수면제를 먹인다. 그 약이 감기약 아스피린인 줄 알고 지내던 ‘나’는 어느 날 그것이 수면제 ‘아탈린’이라는 것을 알고 산으로 올라가 아내를 연구한다.

‘나’를 죽음으로 몰고 갔을지도 모를 수면제 — 그것을 한꺼번에 여섯 알이나 먹고 자고 깨어나서, 아내에 대한 의혹을 미안해한다. ‘나’는 아내에게 사죄하려 집으로 돌아온다. 그리고는 그만 아내의 매음(賣淫) 현장을 목격하고 만다.

도망쳐 나온 ‘나’는 거리를 쏘다니던 끝에 미쓰꼬시 백화점 옥상에 올라가 스물여섯 해의 과거를 회상한다. 이때 정오(正午)의 사이렌이 울고, ‘나’는 “날개야 다시 돌아라. …… 한 번만 더 날아 보자꾸나.”라고 외치고 싶어진다.

이해와 감상

이 작품은 ‘아내’에게 의지해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나’의 상념과 심리 상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생활의 문제를 인물의 내면에 투영하여 의식의 흐름을 드러내듯 서술함으로써 기존의 소설과 다른 서술 방식을 적용한 작품이라는 점에서 문학사적 의의를 가진다.

[앞부분 줄거리] 어린 시절 ‘나’와 B는 ‘곰’이란 별명을 가진 선생님이 내린 별로 서로의 뺨을 때리며 처음 대결한다. 중학교에서도 같은 반이었던 ‘나’와 B는 경희를 사이에 두고 신경전을 벌인다. 중학 졸업반이 되던 해 ‘나’는 경희와의 관계를 B에게 고백했으나 B의 대결 신청으로 공기총 사격을 하다가 ‘나’의 귓바퀴에 상처가 남는다. 6·25 전쟁으로 셋은 헤어지게 되고, ‘나’는 새로 배속된 부대에서 우연히 B를 다시 만나게 되는데, 경희가 B의 아내가 되었음을 알고 배신감을 느낀다. 그 후 B가 모반(謀反)* 협의로 구속되고, ‘나’는 B의 사형을 집행하는 사수로 지명된다.

흰 눈이 쌓인 산록(山麓)*의 바람 소리가 시리다. 그것은 바로 사형 집행장에서의 일임에 틀림 없다. 나는 권총 사격에 몇 점, 카빈*에 몇 점, 엘 원* 소총에는 몇 점 하는 명사수의 하나로, ‘나’가 사격을 잘하는 인물임이 제시됨. 사수로 지명될 수밖에 없는 개인성 확보 나의 소속 부대에서도 알려져 있다. 그러나 나 자신이 이 사형 집행의 사수로 지명될 줄은 몰랐다. 또 그렇게 달갑지도 않은 일이다. 더욱이 일단 지명된 이상에는 피해 낼 도리가 없다. 아무

도 이런 일을 선두에 서서 하겠다는 사람은 없다. 그것도 전기 장치로 된 집행장에서 단추 하나를 누르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계가 스스로 모든 일을 처리하여 주는 경우라면 몰라도, 이런 경우는 따분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그렇지 않아도 나는 전에 형무소에서 사형을 집행하는 관리 사수가 되기 싫다는 거부감 들의 고역을 상상해 본 일이 있다. 그럴 때마다 소름이 끼쳐 그런 일을 어떤 불우한 사람들이 직업으로 삼고 맡아 할 것인가 하고 동정했던 것이다. 사실 그 경우의 죽는 사람과 죽이는 사람 사이에는, 개인적으로 생명을 여탈(與奪)할* 하등의 이해관계가 없는 것이 거의 전부의 경우이기 일반적인 사형 집행과 자신의 경우가 다르다는 차이를 인식. ‘나’와 B의 경우 개인적 대결임을 강조에…….

지금 나의 경우는 약간 다르다. (B가 오늘 집행되는 수형(受刑)의 당사자라는 것을 알았을 때 나는 순간— 그것은 참말 계량할 수 없는 눈 깜짝할 찰나였지만 —복수의 만족감 같은 회심의 B의 사형을 앞두고 느낀 감정, 내면에 쌓인 경쟁 의식과 복합한 감정 표출 미소를 지을 뻔했던 것이다.) B의 얼굴에 겹쳐 경희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러나 그것들이 다 어릴 때부터의 벗이었던 순진하고 아름다운 정에 얹매인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언젠가 가족 동반 B와 경희를 더 이상 순수한 존재로 보지 않음(주의의 왜곡, 정서의 변화, 심리적 거리감 표현)에서 만난 당황하는 표정들이 점점 혐오를 느끼게 하던 그런 모습들인 것이다.

나는 눈을 떴다. → 회상에서 현실로 돌아오는 전환점(과거-현재의 교차 서술 구조로 사건 전개)

십 미터의 거리 전방에는 B가 서 있다. 목사의 기도는 끝났다. 유언(遺言)이 없느냐고 물었다. B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내 앞에서 졌다고 항복한 일이 없는 B다. 그렇게 서 ‘나’는 B가 패배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로 대결이 되는 경우는 늘 내가 양보하는 위치에 서게 되었었다. 오늘도 이 숨 가쁜 마지막 고비에서, B의 목숨을 앞에 놓고 B와 나는 여기 우리 둘이 한 번도 같이 와 본 적이 없는 눈 덮인 산골짜기에서 이렇게 대결하고 있는 것이다. 나를 알아보는 B의 눈은 조금도 경악의 표정은 없나는 사수, B는 사형수로 만난 것을 마지막 대결로 인식 다. 일체의 체념이 나까지도 안중에 없게 하는가 보다. 그러면 나는 벌써 이 마지막 순간에도 B의 태도에 대한 해석, 마지막 순간에도 B가 당당함을 유지하면서 심리적 우위에 있음



내면의 패배감 인식. B와의 대결 구도에서 또 한 번의 심리적 패배 표현

이미 B에게 지고 있는 것이다. 만일 내가 이 자리에 사수로 나타나지만 않았다면 B는 무슨 말이

듣 한마디 남겼을는지도 모른다. 적어도 경희에게만은 무슨 마지막 당부의 한마디를 전하여 주

고파 했을 것이 아닌가. → B가 유언을 하지 않은 것을 '나'에게 패배하지 않으려는 것으로 생각

(다섯 명의 사수는 일렬로 같은 간격을 두고 나란히 횡대로 늘어섰다. B의 손은 뮤인 대로이 → 집행장의 모습 묘사

다. 그의 눈은 검은 천으로 가리어졌다. 왼쪽 가슴 심장 위에 붙인 빨간 형겼의 표지가 햇빛에

반사되어 더 또렷하다.) 헛기침 소리 이외에는 아무의 입에서도 말이 없다. 다만 몸들의 움직임

이 있을 뿐이다. 사형이 집행되기 직전의 고조된 긴장감 표현



과거
회상 ↓
B가 이적인 모반 혐의로 구속되었다는 신문 보도를 본 얼마 후 나는 B의 집으로 경희를 찾

아갔다. 이 근래의 B의 의식 상태에는 약간의 이상적인 징조가 나타나 발작적인 행동이 집 안에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었던 B

서도 거듭되었다는 사실은 이날 들은 이야기다. B는 나의 절친한 친구의 한 사람이었다고 나는

지금도 그 생각은 버리지 않는다. 그와의 개인적인 대결이 치열할수록 나는 그를 잊어 본 적이 B와의 대결이 거셀수록 B에 대한 관심이 더 강력하게 작용 → 경쟁이 끝 애증의 감정으로 이어졌음을 시사 / 경쟁-우정-적대-연민의 교차적 감 없다. 내 삼십 년의 지나온 세월에 있어서 B는 내 마음속에 새겨진 가장 오랜 친구였고, 접촉된

시간도 가장 긴 인간이기 때문이다. 나와 그는 이해관계를 초월하여 사귀어 왔다. 다만 경희의

경우를 비롯한 몇 고비의 치열한 대결은 B와 나의 의식적인 적대 행위가 아니라, 환경적인 조건 '나'와 B의 복잡하고 이중적인 감정

이 주어진 불가피한 운명 같은 것이 더 컸다고 나는 생각하고 싶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나의 아끼던, 아니 현재도 아끼고 있는 유일한 친구이고, 그와의 어쩔 수 없는 대결이 거세면 거

셀수록 그에 대한 관심이 더 강력하게 작용했던 만큼, 그의 혐의를 받는 죄상에 대한 내막은 이

이상 더 소상하게 들어놓고 싶지는 않다.

나를 만난 경희는 시종 울기만 하였다. 그것은 오랫동안 떨어졌다가 만난 육친의 애정 같은

경희를 만났을 때의 '나'의 감정과 경희의 태

것이어서 그 자리에서는 그와 나 사이에 아무런 장벽도 없는 것만 같았다. 경희는 남편인 B의

구출 문제보다도 나에 대한 자신의 변명 같은 호소로 일관하였다. (사변 통에 나의 행방은 알 길

이 없었고, 수복 후에 우연히 만난 것이 나와 자기와의 과거를 가장 잘 아는 B였기에, 나의 생

사에 대한 수소문을 서두르는 사이에 나의 소식은 묘연했고, B와의 결혼이 정식으로 성립되었

B와 경희가 결혼하게 된 과정을 요약적으로 제시

다는 것이다.) 나로서는 지금이라도 경희가 B를 버리고 나의 품으로 뛰어오겠다면 받아들일 수

아직 경희를 좋아하는 마음이 남아 있음

있는 애정의 여신(餘燼)*이나 아량이 없는 바도 아니었지만, 몇 번이고 죽음에 직면했던 나로

서, 경희의 행방에 대한 관심에 얼마 동안 적극적이 되지 못하였던 나 자신에 대한 자책이 이제

야 더욱 거세게 싹터 나로 하여금 아무의 힐난(詰難)도 못 하게 만들었고, 오히려 경희에 대한

미안한 생각으로 가슴이 뿌듯해지게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다. B의 구명 운동이

감정 회복의 불가능성, B를 구하기 위해 노력하는 '나'와 경희의 모습

우리 둘의 긴급한 일로 당면될 뿐이었다.



안전장치를 푸는 쇠붙이 소리가 산골짜기의 정적 속에 음산하다.

다시 현재로 돌아옴. 사형 집행장의 분위기를 청각적 이미지로 환기

나는 무심중 귓바퀴의 상처에 손이 갔다. 모두 껍데기처럼 까칠한 감촉이 손끝에 어린다. 지

과거 B와의 공기총 대결의 기억이 현재로 되살아남. 과거의 대결이 현재에 지속됨을 의미(촉각적)

나간 조각조각의 단상들이 절서 없이 한 덩어리로 뭉겨져 엄습해 온다. B와 경희와 곰과 공기총

얽히고설킨 과거의 기억들로 인한 심리적 혼란 상태, 감정의 압축적 폭발, 내면 독백 형식
과, 겹잡을 수 없는 착잡한 감정이다.

“겨누어, 총!” 사형 집행의 구령은 명령이자 운명의 압력처럼 작용하여, 인간이 선택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갈등이 극대화됨을 보여줌
외적 구령에 복종하는 인물들의 무력감도 동시에 드러냄.

구령에 맞추어 사수는 일제히 개머리판을 어깨에 대고 B의 심장에 붙인 붉은 딱지에 총을 겨

누었다.

총의 앞부분이 있는 조총 장치

순간 나는 내 정신으로 돌아왔다. 최종에는 내가 이긴 것이라는 승리감 같은 것이 가슴의 사수로서 우위에 선 듯한 일시적인 승리감이 느껴지는 자기 기만적 정서

명으로 내다보이는 B의 심장 위에 어린다. 그러나 나는 곧 나의 차디찬 의식을 부정해 본다. 어
나의 승리가 아님을 인식

떻게 기적 같은 것이라도, 정말 기적 같은 것이 있어, 이 종언의 위기에 선 B를 들고 달아날 수
인간적인 연민, 복잡한 내면 심리의 정점(복수와 연민, 적대와 우정이 교차)

는 없는 것인가고…… 방아쇠의 차디찬 감촉이 인지(人指)의 안 배에 짜늘하게 연결된다. 내가
촉각적 이미지를 통해 고조된 긴장감 표현 둘째 손가락

쏘지 않아도 다른 네 사수의 탄환은 분명 저 B의 가슴의 빨간 딱지 표지를 뚫고 심장을 관통할

것이다.

“쏘아!” 현실적 죽음의 도래, 긴박감과 비극성 고조, 청각적 이미지 활용

구령이 끝나기가 바쁘게 일제히 ‘빵’ 소리가 났다. 나는 아직 방아쇠를 당기지 않고 있는 것을

깨달았다. 지금 여기 B와의 최후 순간의 대결에서 나는 또 자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이제

대결에서 늘 뒤쳐졌던 패배감을 되짚으며 결국 인간의 한계와 무력함을 자각하게 되는 장면(심리적 방황과 미성숙의 은유)
나마 그와의 대결의 대열에서 제외되어서는 안 될 것 같다. 방아쇠를 힘껏 당겼다. 총신이 위로

튕겨 올라가는 반동을 느꼈을 뿐이다. 회약 냄새가 코를 쿡 찌른다. 그때는 이미 B는 다른 네

사건의 물리적 결과 외에 의미가 없음을 인식. 사형이 끝난 후의 허탈감과 행위의 공허함을 드러냄
방의 탄환을 맞고 쓰러진 뒤였다. 그는 넘어지면서도 끝까지 나에게 이겼다고 생각했는지도 모

B의 심리에 대한 추측. 마지막까지 패배감을 떨치지 못한 ‘나’의 복잡한 감정
른다. 총소리와 함께 나 자신도 그 자리에 비틀비틀 고꾸라졌다. 극도의 빈혈이었다.

육체적 충격 이상의 내면적 붕괴. 극도의 심리적 긴장 후 탈진

“이제 의식이 완전히 회복돼 가는가 봐요.”

눈을 떴다.

옆에 경희가 서 있다. 찬 수건으로 내 콧등의 땀을 닦아 내고 있다. B와 나란히! 아니, B는
간호사를 경희로 착각 인식의 혼란, 후회와 회한의 심리적 표출. 환상과 현실의 교차
없다. 경희도 아니다. 무표정하게 짜늘한 아까의 간호원이다.

내가 이겼는지, B가 이겼는지, 내가 이겼어도 비굴하게 이긴 것만 같은 혼몽한 속에서 나는

이겼는지 졌는지 조차 확신하지 못함 → 대결의 끝이 승패가 아닌 상처와 공허함을 암시
다시 깊은 잠에 떨어졌다.

- 전광용, 「사수」 -

*모반: 국가나 군주의 전복을 꾀함.

*산록: 산의 비탈이 끝나는 아랫부분.

*카빈, 엠 원: 개인 휴대용 무기의 일종인 소총의 이름들.

*여탈하다: 주거나 빼앗다.

*여신: 타고 남은 불기운.



핵심 정리

- 갈래: 현대소설, 심리 소설, 전후 소설
- 성격: 사실적, 비판적, 심리적
- 주제: 외부적 힘에 의해 이어지는 운명적인 대결 의식, 민족 분단의 비극
- 특징
 - 간결한 문체로 속도감 있는 전개를 보임.
 - 의식을 잃은 '나'가 의식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의식을 잃기 전까지의 과거를 회상하는 역행적 구성 방식을 취함.

전체 줄거리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가 병원에서 눈을 뜬 '나'는 B와의 마지막 대결을 생각하면서 자신이 지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과거를 회상한다. '나'와 B는 어릴 적부터 친구였는데, 학교에서 선생님으로부터 서로의 뺨을 때리는 벌을 받았던 일, 경희를 차지하기 위해 공기총 쏘기 대결을 벌였던 일, 6·25 전쟁으로 셋이 다 헤어지지만, B의 계략으로 경희가 B와 결혼한 일 등을 겪으면서 '나'는 B에게 항상 패배감을 느껴 왔다. B는 이적 행위로 구속되고 '나'는 B의 사형 집행을 맡은 사수가 되는데 다른 사수들이 쏜 총에 B가 쓰러진 뒤 '나'도 B에게 지지 않기 위해 총을 쏘지만 결국 의식을 잃고 쓰러진다.

이해와 감상

이 소설은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인간에게 내재되어 있는 대립 의식을 보여주고 있다. 이 소설은 주인공들의 비극을 전쟁이 심화시키지만, 근본 원인은 그들 안에 내재되어 있는 대결 의식이었음을 보여준다. 내면의 경쟁의식을 묘사함으로써 심리 소설적인 요소를 갖추고 있다. 이 소설은 과거를 회상하는 형식으로 진행되며 간결한 문체를 사용하여 속도감 있게 '나'의 심리 상태를 표현하고 있다. 이 소설에 나타난 주된 대립 관계인 '나'와 'B'의 관계는 남북 관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나'와 친구 B는 어린 시절부터 맞수이다. 6.25의 혼란기 속에서 '나'와 B는 사수(射手)와 사형수(死刑囚)의 관계로 대립한다. 마지막 대결에서 B는 '나'와 또 다른 사수(射手)에 의해 죽음을 맞는다. 우리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인간의 삶에 개입하여 그 관계를 미묘한 방향으로 전개시키는 어떤 비밀스러운 힘이 있지 않은가를 생각해 하는 작품이다.

이 작품은 인물들의 대립 관계를 통해서, 인간 사이에 음험하게 자리 잡고 있는 대결 의식과 그 비극적 결말을 그리고 있다. 인간은 무수한 형태의 대립 관계를 겪어 가면서 살아간다. 그러나 이 모든 대립과 갈등은 스스로의 인간적 의지에서보다는 그와 같은 대립을 요구하는 외부적 상황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더 많다. 이런 의미에서 이 작품은 미묘한 인간관계를 통하여 비극의 본질과 그 책임의 궁극적 소재를 탐구한 작품이라 할 만하다.

작품의 구성을 보면, 이 작품의 서두 부분은 '나'가 B의 사형을 집행하고는 그 충격으로 기절하는 장면으로 채워져 있다. 하지만 작품의 서두를 채우고 있는 인물과 상황은 시간의 전후 관계로 볼 때에는 결말 부분에 나오는 B의 사형 집행 장면 바로 뒤에 붙여야 한다. 따라서 이 작품의 서술 방법은 맨 앞에 결론을 제시해 놓고 어떻게 그러한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는지를 보여 주는 일종의 연역적 방법이며, 시간의 역전적 배치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이 작품은 의식이 혼미한 가운데 현재의 일과 과거의 일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한 인물의 의식을 보여 준다는 점에서 기법적으로 독특한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앞부분 줄거리] ‘나’는 답사 여행을 떠나는 모임에 늦지 않기 위해 택시를 잡아타고 약속 장소에 도착했지만 답사 일행이 탄 버스를 놓치고 만다. 강원도 양양의 선림원 사지에 가기로 했던 삶의 불일치,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는 현실 상징
답사 일행을 쫓기 위해 ‘나’는 택시를 타고 휴게소를 들르며 답사 일행을 찾는다. 답사 일행을 간절한 추구의 행위, 인생 여정의 축소판
 찾지 못한 채 묵을 곳도 없이 밤을 보내던 ‘나’의 사정을 들은 청년들은 답사 일행과 그들이 탔던 버스를 찾아 주겠다며 나서게 된다.

청년 중에 한 사람은 두루마리 화장지 두 개를 잇대어 놓은 크기만 한 “덴찌”를 갖고 있었다.
손전등, 과거에는 갖지 못했던 도구
 매표소에 있던 것을 그대로 들고 온 듯했는데 그 손전등은 새 전지를 갈아 끼운 지도 오래되지
과거의 어두운 덴찌와 대비되는 청년들의 덴찌
않아서 매우 밝았다. 청년은 주차장의 어둠 속에 도열해 있는 관광버스들의 소속 회사 표지와
 번호판을 손전등을 휘적거리며 빠른 걸음으로 찾았다. 낙산에서도 청년은 그 손전등을 켜서 휘젓고 다녔었지만 그것이 내 시선에 하나의 존재로 느껴지기는 설악산 주차장에서였다. 내게 심
현재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공간
어진 손전등의 위력은 결정적인 것이었다. 그것만 있으면 새를 찾을 수 있었고 손쉽게 잡을 수
밝을 손전등을 보고 과거 새잡이를 생각함
도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시절의 덴찌보다 몇십 배의 밝은 촉광을 가지고 있는 손전등을 청
목표 달성 실패(도구는 발전했으나, 여전히 좌절됨 → 삶의 본질에 대한 사색으로 이어짐)
년은 가지고 있었지만 버스는 찾지 못했다. 버스는 새보다 몇백 배의 부피를 더하고 있는데도

그랬다. 현재의 ‘나’ – 답사 일행을 찾기 위해 방황하며 설악산 인근을 헤맴 회상을 통해 과거와 현재가 교차됨
과거의 ‘나’ – 누나와 함께 새를 잡으려 함 (공통점: 무언가를 간절히 추구하지만 결국 달지 못한 경험)

↓
과거
회상

어느 날 밤, 누나와 나는 한 충격적인 일을 발견하게 되었다. 거의 매일이다시피 새집을 후리 누나와 내가 살고 있는 집에도 새집이 있다는 사실 러 다녔지만 누나와 나는 언제나 허탕이었다. 그날도 역시 덴찌꾼들의 분탕질에 허탕을 치고 새 전등을 비추어 새를 잡아버리는 일 벽에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집으로 들어서는 순간, 나는 그것을 발견했었다. 구태여 덴찌

꾼들을 저주하거나 타박할 까닭이 없다는 발견이 그것이었다. 그것은 간단했다. 바로 우리 집도 새들이 곧잘 깃을 트는 초가집이었고, 초가집인 이상, 필경 어느 집들처럼 대여섯 군데의 새집 우리 집에도 새가 있다는 확신, 과거의 ‘나’가 실패 원인을 외부(덴찌꾼)에서 내부로 전환하여 인식하는 계기 은 있을 것이라는 일이었다. 우리 집도 덴찌꾼들의 순례 목표에 포함되어 있어 마땅하다는 결론

에 이른 것이었다. 역시 내 생각이 옳았던 것은 내 말을 듣고 난 누나가,

“우악꼬, 너 말이 딱 맛파대이. 우악꼬, 내가 입때까지 고결 생각 못 했대이, 너 말이 맞대이.”
사투리 사용으로 사실감 현장감을 높임



우리 집인 이상 우선 삽짜을 닫아걸어서 텐찌꾼들의 범접을 딱 잘라서 거절하고 누나와 내가
대문 접근

조용히 그리고 은밀하게 새집을 후릴 수가 있지 않은가. 그 간단하면서도 보장된 성과를 발견한
문제의 원인을 '우리'에서 찾고 해결하려는 모습

우리는 흥분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집에서 살고 있는 새들을 후리는 일에 착수했다. 우선 윗

방의 문을 활짝 열었다. 너무 어두웠기에 방에 켜 둔 불빛을 이용하자는 심산에서였다. 역시 내

가 누나의 무등을 했다. 예상했던 것처럼 우리집의 이영의 커에도 새집들이 들어 있었다. 두 번
총

째까지는 허탕을 쳤지만 세 번째의 집에서 나는 새를 잡았다. 살아 있는 새와의 첫 번째 만남은
'나'와 누나가 새를 잡는 과정을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진술

충격적이었다. 내가 세 번째의 구멍 집에 손을 깊숙이 집어넣자마자 손끝에 와 닿는 풍클한 온

기는 분명 새의 깃털이었다. 신선하다고는 볼 수 없는 그 온기가 감지되는 순간 나는 누나가 얘

기했던 대로 무작정 칙 움켜쥐었다. 거의 찰나의 순간이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선 누나가 말해

준 대로 꽉 움켜쥐는 방법밖에 달리 요지부동의 방법이 있을 수 없었다. 그러나 첫 번째의 만남

이란 언제나 방법이 서툴게 마련이고 그래서 실패의 확률은 높게 도사리고 있는 법이었다. 그리

고 새는 눈으로 침입자를 노려보고 있었을 터였지만 내 무기는 눈이 없는 손이었다. 내가 새의

깃털을 꽉 움켜쥐는 순간, 나는 손바닥이 물어뜯기는 듯한 따끔한 충격을 동시에 받은 것 같았

다. 착각이었는지도 모를 그 아픔에 나는 소리 치면서 구멍 집에서 손을 빼냈고 내가 손사래를

치는 동안 새는 구멍 집을 빠져나오고 말았다. 그 순간 나는 잠시 허공에 떠 있었다. 내가 구멍

집에서 얼떨결에 손을 빼내어 훌뿌릴 때와 놀란 새가 구멍 집에서 빠져나온 것과 누나가 무등

태우고 있던 나를 내던지듯 내려놓고 방문 앞으로 다가가 문을 닫은 것은 거의 동시의 일이었

다. 물론 나는 그 와중에 허공을 헛디디면서 마당으로 나가 텁굴었다. 누나는 닫은 방문을 뒷집

을 진상태에서 단속하고 돌아선 자세에서 마당으로 나뒹구는 나를 바라보았으나 달려와서 부축
동생이 나뒹구는 것보다 새가 더 중요했던 누나. 누나의 목표에 대한 집중력과 현실적이고 단호한 모습이 드러남
할 의향은 전연 없어 보였다. 그런 야멸스러운 외면은 내가 누나를 알고 난 이후 처음 겪는 일

이었다. 놀란 상태에서 나는 누나의 고함 소리를 들었다.

“새 잡았대이.”

그것은 사건이었다. 그러나 새가 누나의 손에 들려 있는 것은 아니었다.

매번 실패하다가 처음으로 새를 잡는 기대감을 담은 표현

“새가 방으로 들어갔대이.”

누나가 새를 잡았다고 단정 지어 말한 것은 그 때문이었다. 물론이었다. 나도 그걸 믿었다.
방으로 들어간 새를 잡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생각

방 안으로 들어간 새를 놓칠 리는 없었다. 더구나 새가 방으로 날아들었다는 것은 얼살을 먹어

확신의 이유 1

서* 온전한 방향 감각을 잃고 있었다는 증거였다.

확신의 이유 2

(중략)

어둠 속에서 보이지 않는 새와의 숨 가쁜 혼전은 그때부터 시작되었다. 우리는 놀란 새가 뛰

거나 벼동거리는 소리의 중심에다 무작정 우리들의 몸뚱이를 날려 덮쳤다. 그러나 그때마다 새
어두운 곳에서 새를 잡으려는 우리의 행동과 실패(역동적, 청각적 이미지)

가 나래를 펴덕이는 소리는 전연 엉뚱한 곳에서 들려오곤 했었다. 그러면 우린 다시 일어나 그

소리의 중심부에다 레슬링 선수처럼 아낌없이 몸을 던졌다. 새가 펴덕이는 소리보다는 우리들의

팔다리가 벽과 방구들에 부딪치는 소리가 더 크게 들렸다. 무릎이며 팔꿈치와 뒤통수 같은 곳이
청각, 촉각적 이미지와 비유적 표현으로 새를 잡는 모습을 표현

아리거나 쓰렸고 온 몸뚱이는 물을 뒤집어쓴 듯이 땀으로 젖어 있었다. 그리고 그러한 새와의

혼전은 긴 시간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새는 아직 잡히지 않았다.

그때 문득 우리는 새의 날개깃 소리가 들리지 않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누나가 말했다.

새가 방에서 도망갔을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

“영구야, 가만있어 보레이.”

누나는 어둠 속을 데듬거리면서 내 두 손을 꼭 잡아 줬었다. 누나의 손은 잿빛에 물었다 꺼낸
새를 잡으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감각적, 비유적으로 표현
고구마같이 뜨거웠고 코에서는 단내가 풍겼다. 새는 없었다. 형용만 보이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새잡이가 실패함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언제 그런 불상사가 빚어졌는지 몰라도 열려 젖혀진 방문 밖으로부터

희미한 그믐달이 새어들고 있었다. 벌써 새벽이었다.

시간의 경과, 밤의 분투와 새벽의 허무함 대비

우리 네 사람은 답사 일행을 찾기를 포기하고 설악산 입구 여관촌에서 곧장 승용차를 돌려서
답사 일행을 찾으러 간 '나'와 세 명의 청년

오색으로 돌아왔다. 그때가 새벽 3시 반이었다. 해가 뜰 시각은 아직도 두 시간 이상을 기다려
과거 새잡이 실패 경험과 연결되는 시간

야 했다. 청년들의 권유대로 매표소 안으로 들어가 졸면서 해뜨기를 기다리기로 했다. 한계령

계곡의 새벽은 몹시 추웠다.

실패로 인한 심리적 상황 제시

- 김주영, 「새를 찾아서」 -

*얼살을 먹어서: 뜻밖의 일을 갑자기 당해 정신을 가다듬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



핵심 정리

- **갈래:** 현대 소설, 단편 소설
- **성격:** 회상적, 교훈적
- **주제:** 무엇인가를 애탏하게 찾아가는 과정으로서의 삶과 그 의미, 아름다운 삶과 생명 추구
- **특징**
 - 과거와 현재를 교차하여 서술함.
 - 과거와 현재의 유사한 경험을 바탕으로 삶의 진정한 의미를 드러냄.

줄거리

‘나’는 답사 여행을 떠나는 모임에 늦지 않기 위해 택시를 잡아타고 약속 장소에 도착했지만 답사 일행을 놓치고 만다. 강원도 양양의 선림원 사지에 가기로 했던 답사 일행을 쫓기 위해 ‘나’는 택시를 타고 휴게소를 들르며 일행을 찾는다. 하지만 마주쳤어야 할 일행은커녕 그들이 탄 버스조차 발견하지 못한다. ‘나’는 목을 곶도 없이 밤을 보내다 주차장 매표소에 불이 켜진 것을 본다.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청년들이 사정을 듣고 함께 일행을 찾아보았지만 결국 실패한다. ‘나’는 일행을 찾던 도중 유년 시절 누나와 새를 잡으려다가 실패했던 경험을 떠올린다. ‘나’는 결국 일행을 쫓는 것을 단념하고 선림원 사지를 보려 가기로 한다. 절터만 남은 선림원 사지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나’는 고요한 풍경 속에서 나무에 앉은 새를 바라본다. 새는 나중에 솔방울로 변했고 ‘나’는 내려와서야 일행들을 만나게 된다.

이해와 감상

이 작품은 선림원 사지로 먼저 떠난 답사 일행을 찾던 ‘나’가, 새를 잡기 위해 헤매던 자신의 유년 시절을 회고하는 내용을 통해 삶의 의미에 대한 작가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새’를 잡으려고 했던 ‘나’의 과거와 ‘답사 일행’을 찾으려고 하는 ‘나’의 현재는 모두 무엇인가를 맹목적으로 애탏하게 찾아가는 과정이며, 이러한 과정은 ‘나’의 삶 속에서 반복적으로 재현되고 있다. 작가는 이처럼 무엇인가를 애탏하게 찾아가는 과정이 곧 삶이며, 무엇인가를 찾는 노력이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살아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허석이 나오는 순간 운명의 여신이 한 번 더 미소를 짓는 것처럼 느껴지는 걸 보니 사랑에 빠
허석과의 만남을 운명과 연결된 낭만적 사건으로 느끼는 '나'(사랑이 운명처럼 찾아온다고 믿는 순수한 감정의 소유자)
졌을 때 운명이나 행운을 들먹거리게 되는 것은 꽤나 보편적인 일인 모양이다.

허석은 내가 마루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는, 진희 아직 안 잤구나, 하면서 옆에 나란히 앉는
일인칭 서술자(진희)
다. 무릎 위에 얹힌 그의 손이 참 예쁘다. 키가 커서 그런지 손가락이 참 길다는 생각이 듈다.
시각적 이미지와 상상력을 통해 허석에 대한 호감을 드러냄
저 손가락으로 기타 줄을 통길 것을 상상하니 어쩐지 그의 옆모습이 낭만적으로 보인다.

허석은 별을 보는지 잠시 아무 말이 없다. 마당 구석에 있는 도토리 감나무의 가는 가지가 어
둠 속에서 가볍게 흔들린다. 허석이 그쪽으로도 열핏 고개를 돌려 본다. 그 몸짓이 어딘지 쓸쓸
해 보이는데 그 쓸쓸함이 왜 이런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것인지, 나는 난데없이 애틋한 기분이
허석의 모습에서 쓸쓸함을 느끼는 '나'의 애틋함
된다.

그렇게 쓸쓸해 보이는 채로, 애틋한 채로 우리는 한참이나 말없이 밤하늘만 보고 있다. 흐르
는지 멈췄는지 시간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가 없다.
호감을 느끼는 상대와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느끼는 설렘과 긴장감
갑자기 허석이 낮은 목소리로 "진희야" 하고 부른다. 내가 그의 낮은 목소리만큼이나 조용하
고 느린 동작으로 그를 향해 몸을 돌리는데 갑자기, 갑자기 그의 팔이 내 어깨를 가만히 감싸안
는 게 아닌가. 그의 팔이 너무도 무거웠다. 아니 사실은 그의 팔이 무거운 것이 아니었다. 모든
신경이 어깨로만 가 있어서 내 몸 전체가 온 힘을 다해 그의 팔 하나를 받치고 있는 듯했기 때
무게에 대한 표현을 통해 상대방에게 온 신경이 쏠려있는 나의 긴장감과 떨림을 표현
문에 무겁게 느껴지는 것뿐이었다. 무거운 팔 하나를 그렇게 내 어깨에 올려놓고 그가 여전히
밤하늘을 보면 꿈속처럼 말한다.

"며칠 동안 즐거웠는데, 벌써 헤어지게 됐구나."
두 사람이 헤어지는 상황 제시
처음에는 그가 무슨 말을 했는지 귀에 들어오지도 않는다. 소가 풀을 통째로 삼키듯이 그의
뜻밖의 말을 들은 나의 반응
목소리만을 통째로 삼켜 버린다. 조금 후에야 소의 발통에서 도로 끄집어내져 씹히는 풀처럼 그
위
의 말을 도로 새김질해 보자 그제서야 그의 말뜻이 머리에 들어온다. 헤어지게 됐구나, 라고.
이별의 상황임을 인식
"언제 가는데요?"

"응. 내일."

허석의 짧은 대답은 내 가슴을 짧게 찌른다. 그러면, 허석이 떠난다는 말인가?
정말로 이별한다는 사실과 자신을 떠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말하는 허석에 대한 나의 심리적 충격
나에게 있어 이별의 고통을 느끼는 것과 그 이별에 대한 항체가 분비되는 것은 거의 동시에
이별에 대한 대응책
이루어진다. 음식물이 들어가자마자 침이 분비되는 것과 같다. 이별이 닥쳐왔다는 것을 깨닫자
이별의 충격에 대한 즉각적 방어 본능
그것을 녹여 없애기 위해 내 마음속에서는 또 내가 두 개로 나뉘어진다.
구체적 대응책 : 자아를 분리하여 이별의 상처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는 것



보여지는 나: 걸으로 드러나는 나

허석을 향한 감정이 너무나 강렬해져 있는 참이라서 지금 이 순간 나를 '보여지는 나'와 '바라보는 나'로 분리하기란 쉽지가 않다. 그러나 나는 가까스로 성공한다. 진짜 나로부터 분리되어

허석에 대한 감정을 숨기기 쉽지 않음
나온 나가 허석에게 말한다. 전혀 아쉽지 않은 것처럼 짐짓 명랑한 목소리로.

일부러 명랑한 말투를 쓰며 감정을 감출(태연한 척하는 말투)

"우리 고향 어땠어요? 인상 좋았지요?" '바라보는 나'가 '보여지는 나'를 조종하는 장면

내 어깨 위에 얹은 허석의 팔에 약간 힘이 들어간다. 허석이 앉은 채로 내 쪽으로 몸을 돌렸

기 때문이다. 그 바람에 나는 조금 안긴 자세가 되어 허석의 눈을 마주 본다. 내 눈을 똑바로 쳐

다보며 허석이 부드러워 보이는 입술을 움직여 말한다.

"응. 특히 진희 넌 잊지 못할 거야." '나'를 어린 아이로만 여기는 허석의 말

〈나는 그다음에 그가 나를 와락 안아 버리지나 않을까 하고 상상했다. 그러면 얼마나 행복할까
낭만적 상상

하는 생각과 함께 한편 그때 마침 삼촌이나 이모가 나오면 어떻게 할까, 화들짝 팔을 풀고는 괜

히 어깨를 털다듬가 하면서 은밀한 짓을 들킨 사람의 무안함을 무마해 본다? 그건 너무 유치한

짓이다. 그렇다고 "우린 사랑하니까 상관없어요"라고 하면서 계속 포옹을 하고 있을 자신은 없

고…… 어떻게 시치미를 떼야 하나, 그 궁리까지 하고 있었다. ⇒ 허석이 자신을 사랑해 줄지도 모른다고 여기는 '나'의 낭만적 상상
변명거리를 궁리함

그러나 그런 생각은 할 필요가 없었다. 그는 나를 와락 안아 버리지는 않았다. 대신 내 어깨

위에 얹었던 팔을 쳐들더니 가볍게 등을 몇 번 토닥이는 것이었다. 그런 다음 몸을 일으키고는
허석은 '나'를 귀여워만 하고 있음

"내일 아침에 보자" 하면서 다시 삼촌 방으로 들어가려 하였다. 아니 들어가려다가 다시 나와서

신발을 신는다. 역시 변소 쪽에 볼일이 있는 모양이다.

허석이 '나'의 바람과는 달리 '나'를 보려 나온 것이 아닌 변소에 가기 위해 나온 것임

(중략)

허석이 그렇게 떠나 버린 후에도 내 마음의 평정은 쉽게 되찾아지지 않았다. 나는 염소와 혼란스러운 나 모니카의 실루엣에서 도저히 벗어날 수가 없었다.

'나'가 처음 만난 허석의 모습, '나'가 자신의 집에 찾아온 허석과 동일시했던 대상이면서, 허석에게 사랑을 느낀 이유
바람이 제법 차가워졌을 무렵 어느 날 나는 정말 우연히 제방 길을 걷게 되었다. 지난여름에

염소와 하모니카의 실루엣을 처음 만났던 곳
는 일부러 이 길을 피해 다녔던 것인데 그 이후 습관이 되어 제방 길 쪽으로는 거의 걸음을 하

지 않았기 때문에 참으로 오랜만에 나와 보는 길이었다. 허석이 떠난 후 허석을 떠올리기 고향하는 장소를 피한 나

처음 허석을 만나던 날처럼 노을이 질게 내려 깔리고 있었다. 그 길을 터덜터덜 걸어가며 나

는 처음 허석을 만나던 순간이 마치 어제 일처럼 또렷이 기억되는 것에 고통을 느끼고 있었다.

허석에 대한 생생한 기억으로 인한 고통

그런데 참 어이없는 일이었다. 허석이 하모니카를 불었던 바로 그 자리에 누군가가 서 있었

다. 허석처럼 키가 컼다. 그 옆에는 염소까지 묶여 있었으며 게다가 그 염소의 흰 털이 노을에
'나'가 허석에게 반했을 때와 동일한 상황
붉게 물들어 있었다. 나는 삶이 나를 조롱하는 데 대해 화가 났다. 왜 내게 허석과의 만남을 이
허석과의 만남과 이별에 운명적 요소가 개입되었다는 생각(자신의 감정이 운명에 의해 통제되고
처럼 생생하게 기억시키려는 것인가. 왜 그때와 똑같은 상황을 내 눈앞에 연출하여 일껏 벗어나 조롱당하는 것 같은 무력감

려고 애쓰는 염소와 하모니카의 실루엣을 더 깊이 각인하는가. 화가 난 나머지 나는 삶에 맞서

서 삶을 비꼬아 주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하모니카는 없는가? 기왕 모든 것을 재현하려면 하모
과거의 재현을 비꼬는 어조. 감정에서 벗어나기 위한 냉소적 태도

하모니카까지 갖추지 않고? 거기까지 생각했을 때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 그 키 큰 남자가 주

머니에서 하모니카를 꺼내 불기 시작했던 것이다. 기억하건대 허석을 처음 만났던 날 들었던 바

로 그 멜로디였다. 순간 그 남자가 허석이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내 얼굴에는 피가 몰렸다. 한

발 가까이 가서 보니 노을을 배경으로 하모니카를 불고 있는 그의 옆에서 염소가 짧은 다리를

버팅기며 줄이 묶인 채 이쪽저쪽으로 고갯짓을 하고 있었다. 염소와 하모니카의 완벽한 실루엣

이 그의 옆모습을 감쌌다. 그러나 물론 허석은 아니었다.] => 허석에게 처음 반했을 때와 동일한 상황이 펼쳐짐

그제서야 나는 삶의 경고를 깨달았다.

사랑의 실체가 아닌 이미지에 빠져 있었다는 깨달음

경악한 나는 하모니카를 불고 있는 남자 쪽으로 마구 달려가 보았다. 그렇다. 가까이 가서 보

니 더욱 모든 것이 명백했다. 그날 하모니카를 불던 사람도 바로 이 사람이었다. 허석이 아니었

다. 하모니카와 염소의 실루엣은 허석의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낯선 남자의 것이었다. 내 사랑이

이 이미지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나는 마땅히 허석이 아닌 이 더러운 낯빛의 구부정한 아저씨를

사랑의 본질에 대한 자기 반성. 감정의 실체가 허상에 기댄 것이었음을 자각

사랑했어야 하는 것이었다. 그런 거였다.

멍하니 서 있는 내게 하모니카 아저씨가 말했다.

"너 하모니카 소리 좋아하는 모양이구나. 몇 살이니? 귀엽게 생겼구나. 이리 가까이 와 봐, 아

저씨한테. 자, 어서."

제방 길 옆에 문동이가 산다느니 폐병 환자가 산다느니 하는 말이 혀소문만은 아니었다. 나는

하모니카 아저씨를 두려워하는 나

뒤도 안 보고 도망을 쳐야 했다. 집에 가까이 와서야 나는 내가 울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삶에

현실에서 받은 충격으로 인한 반응. 어린 '나'의 본능적 대응

게 조롱당한 것이 분해서만은 아니었다.

우는 나를 보면서 나는 아직 내게 사랑에 대한 환상이 남아 있었음을 알았으며 내 몸속에 물
허석에 대한 사랑의 감정이 남아 있음

기로 남아 있는 그 환상을 마지막 한 방울까지 짜내어 배설시켜 버리기 위해서 울 수 있는 한

환상에서 벗어나기 위한 울음(감정의 정화를 통한 성장. 사랑의 환상을 버리고 현실로 나아가는 의지)

실컷 울었다.

- 은희경, 「새의 선물」 -



핵심 정리

- **갈래:** 성장 소설, 세태 소설
- **성격:** 회고적, 냉소적
- **주제:** 열두 살 소녀가 바라본 어른들의 삶과 소녀 자신의 성장기
- **특징**
 - 1인칭 관찰자 시점과 주인공 시점이 혼용되어 나타남.
 - 액자식 구성을 취하고 있음.
 - 주인공이 '바라보는 나'와 '보여지는 나'로 시선을 분리하여 삶을 인식함.

줄거리

'나'(진희)는 여섯 살 때 엄마를 잃고 외할머니에게 맡겨진다. '나'는 스스로가 성숙하다고 여기면서도 곁으로는 자신의 어른스러움을 숨기고 삼촌, 이모와 외할머니 집에 세 들어 사는 이웃들의 삶을 관찰한다. 그러던 중 서울서 유학을 하던 삼촌이 친구 허석과 함께 외할머니의 집에 머무르고, '나'는 허석을 길에서 우연히 목격했던 하모니카를 불던 남자로 인식하면서 그에게 강한 사랑을 느낀다. 그런 허석이 첫사랑에 실패한 이모와 교제를 시작하자 '나'는 번민에 빠지는데, 얼마 후 마을에서 일어난 폭발 사고가 빌미가 되어 허석은 이모와 결별하고 마을을 떠나게 된다. 허석을 더이상 만날 수 없음을 받아들이고 지내던 어느 날 '나'는 하모니카를 부는 남자의 모습을 다시 목격하고, 그가 실은 더러운 낯빛을 한 구부정한 아저씨였음을 확인한다. '나'는 자신에게서 사랑을 불러일으킨 이미지의 실체를 깨닫고서 환멸을 느낀다. 이후 '나'는 자신을 데리러 온 아버지를 만나 외할머니의 집을 떠난다.

이해와 감상

이 작품은 열두 살 소녀인 주인공의 눈을 통해 바라본 어른들의 세계와 소녀 자신의 내면적 성장을 형상화한 소설이다. '나'는 감나무 집에서 살아가는 이모, 삼촌, 이웃들의 삶을 자신의 시선에서 바라보면서 그들의 삶에 감추어진 허위를 날카롭게 파헤친다. 또한 이모의 사랑을 목격하고 자신 역시 사랑을 경험하면서 겪은 사랑의 재인식과 이를 통한 내면적 성장의 과정을 섬세하게 보여 준다.

(나)

오늘도 또 우리 수탉이 막 쪼이었다. 내가 점심을 먹고 나무를 하려 갈 양으로 나올 때였다.
보조사 도'와 부사 '또'는 수탉이 쪼이는 사건이 반복되는 상황임을 보여줌

산으로 올라서려니까 등 뒤에서 푸드득, 푸드득 하고 닭의 햇소리가 야단이다. 깜짝 놀라며 고 날개짓하는 소리(청각적 이미지)
개를 돌려보니 아니나 다르랴 두 놈이 또 얼렸다.

점순네 수탉(은 대강이)가 크고 뚝 오소리같이 실팍하게 생긴 놈)이 덩저리 적은 우리 수탉을
대가리 튼튼하게 몸집, 덩치
함부로 해내는 것이다. 그것도 그냥 해내는 것이 아니라 푸드득, 하고 면두를 쪼고 물려섰다가
여지 없이 이기는
좀 사이를 두고 또 푸드득, 하고 모가지를 쪼았다. 이렇게 멋을 부려 가며 여지없이 닦아 놓는
흔을 낸다.

다. 그러면 이 못생긴 것은 쪼일 적마다 주둥이로 땅을 받으며 그 비명이 킥, 킥, 할 뿐이다. 물
우리 수탉 점순네 닭에게 속절없이 당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과 실망감의 표현

론 미처 아물지도 않은 면두를 또 쪼여 붉은 선혈은 뚝뚝 떨어진다.

지난번 상처 닭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현장감, 사실감)

이걸 가만히 내려다보자니 내 대강이가 터져서 피가 흐르는 것같이 두 눈에서 불이 번쩍 난

다. 대뜸 지게 막대기를 메고 달려들어 점순네 닭을 후려칠까 하다가 생각을 고쳐먹고 헛매질로

페어만 놓았다. 동병상련의 분노, 나는 소작인의 아들이고 점순은 마름의 딸이라서 함부로 할 수 없음

닭싸움의 장면으로 점순과 나의 관계를 드러냄 화를 돋우려고(점순이가 싸움을 불인 이유)
이번에도 점순이가 쌈을 붙여 놨을 것이다. 바짝바짝 내 기를 올리느라고 그랬음에 틀림없을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음 나에 대한 점순의 애정의 반어적 표현, 나와 점순의 갈등을 표출하는 매개물
것이다. 고놈의 계집애가 요새로 들어어서서 왜 나를 못 먹겠다고 고령에 아르릉거리는지 모른다.

점순이가 못살게 구는 원인을 알아채지 못하는 순박한 나(회상의 계기)

나흘 전 갑자 조간만 하더라도 나는 저에게 조금도 잘못한 것은 없다.

과거 회상 나한테 호감을 가지고 감자를 주는 점순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함(해학성)
계집애가 나물을 캐러 가면 갓지 남 울타리 엮는 데 쟁이질을 하는 것은 다 뭐냐. 그것도 발
바쁜 사람을 귀찮게 하는 일

소리를 죽여 가지고 등 뒤로 살며시 와서

남들 모르게 자신의 마음을 전달하고 싶은 점순이

“애! 너 혼자만 일하니?” 하고 긴치 않은 수작을 하는 것이다.

'나'에 대한 점순의 관심 쓸데 없는 수작 → '나'에 대한 점순의 호감을 알지 못하는 '나'

어제까지도 저와 나는 이야기도 잘 않고 서로 만나도 본 척 만 척하고 이렇게 점잖게 지내던
내외하는 당시의 사회상

터이련만 오늘로 갑작스레 대견해졌음은 웬일인가. 향차 망아지만 한 계집애가 남 일하는 놈 보
구…….

그럼 혼자 하지 떼루 하되?”

점순의 의도를 모름 → 해학

내가 이렇게 내뱉는 소리를 하니까
통명스런

“너 일하기 좋니?”

또는

“한여름이나 되거든 하지 벌써 울타리를 하니?”

잔소리를 두루 늘어놓다가 남이 들을까 봐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는 그 속에서 깔깔댄다. 별로
점순의 '나'에 대한 호감과 쑥스러움

우스울 것도 없는데 날씨가 풀리더니 이놈의 계집애가 미쳤나 하고 의심하였다. 게다가 조금 뒤
점순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함, 나의 순진함, 어리숙하고 눈치 없는 '나' → 독자들의 웃음 유발(해학성)

에는 즈 집계를 할금할금 돌아다보더니 행주치마의 속으로 껐던 바른손을 뽑아서 나의 턱밑으
로 불쑥 내미는 것이다. 언제 구웠는지 아직도 더운 김이 흑 끼치는 갑자 세 개가 손에 뿌듯이
나에 대한 점순의 호감
(적극적이고 대담함)



쥐였다.

“느 집엔 이거 없지?” 하고 생색 있는 큰소리를 하고는 제가 준 것을 남이 알면 큰일 날 테니
무안해서 한 말, 소작인의 아들인 나의 자존심을 상하게 함
여기서 얼른 먹어 버리란다. 그리고 또 하는 소리가

“너 봄 감자가 맛있단다.”

점순의 호의

“난 감자 안 먹는다, 너나 먹어라.”

점순의 정성 거절 → 갈등의 원인

나는 고개도 돌리려 하지 않고 일하던 손으로 그 감자를 도로 어깨 너머로 쑥 밀어 버렸다.

그랬더니 그래도 가는 기색이 없고 뿐만 아니라 째근쌔근하고 심상치 않게 숨소리가 점점 거
호의를 거절당한 것에 대한 분노 (청각적 이미지)
칠어진다. 이건 또 뭐야, 싶어서 그때에야 비로소 돌아다보니 나는 참으로 놀랐다. 우리가 이 동
리에 온 것은 근 삼 년째 되어 오지만 여태껏 가무잡잡한 점순이의 얼굴이 이렇게까지 흥당무처
럼 새빨개진 법이 없었다. 게다 눈에 독을 올리고 한참 나를 요렇게 쏘아보더니 나중에는 눈물
거절에 대한 점순의 분노와 부끄러움
까지 어리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바구니를 다시 집어 들더니 이를 꼭 악물고는 옆디어질 듯 자
빠질 듯 논둑으로 횡하케 달아나는 것이다.
거침없이

어쩌다 동리 어른이

“너 얼른 시집가야지?” 하고 웃으면

“염려 마서유, 갈 때 되면 어렵히 갈라구…….”

천연덕스럽고 넉살 좋고 부끄러움을 타지 않는 외향적 성격
이렇게 천연덕스레 받는 점순이였다. 본시 부끄럼을 타는 계집애도 아니거니와 또한 분하다

고 눈에 눈물을 보일 얼병이도 아니다. 분하면 차라리 나의 등어리를 바구니로 한번 모질게 후
얼뜨기

려 짜리고 달아날지언정.

평소와는 다른 행동을 하는 점순의 모습에 당황하고 의아해함

그런데 고약한 그 꼴을 하고 가더니 그 뒤로는 나를 보면 잡아먹으려고 기를 복복 쓰는 것이
호의와 관심 표현을 거절한 것에 대한 점순의 분노
다.

설혹 주는 감자를 안 받아먹은 것이 실례라 하면 주면 그냥 주었지 ‘느 집에 이거 없지’는 다
나가 감자를 거절한 이유: 자신과 점순의 계층적 차이를 훤히하는 점순의 말 때문에 자존심 상해서
뭐냐. 그러잖아도 저희는 마름이고 우리는 그 손에서 배재를 얻어 땅을 부지므로 일상 굽실거린
지주를 대신하는 사람 소작할 수 있는 권리
다. 우리가 이 마을에 처음 들어와 집이 없어서 곤란으로 지낼 제 집터를 빌리고 그 위에 집을
점순네 집과 우리 집의 관계=마름과 소작인, 불평등한 관계
또 짓도록 마련해 준 것도 점순네의 호의였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농사 때 양식이 달
리면 점순네한테 가서 부지런히 꾸어다 먹으면서 인품 그런 집은 다시없으리라고 침이 마르도
록 칭찬하고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열일곱씨이나 된 것들이 수군수군하고 붙어 다니면 동리
남녀 사이에内外를 해야 하는 시절
의 소문이 사납다고 주의를 시켜 준 것도 또 어머니였다. 왜냐하면 내가 점순이하고 일을 저질
렀다가는 점순네가 노할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땅도 떨어지고 집도 내쫓기고 하지 않으면 안 되
‘나’가 점순의 호의를 거절하고 위축되는 이유
는 까닭이었다.

- 김유정, 「동백꽃」 -

(다)

아버지가 바쁜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그런 것 말고도 계획하고, 결정하고, 지
은강 그룹의 질질적 권리자, 억압의 상징

시하고, 확인할 게 수도 없이 많다는 것을 작은 악당은 몰랐다. 발육이 좋지 못해 우리보다 작고
난쟁이의 큰아들이면서 은강 방직 기사인 영수(노동자를 경멸하는 시선)

약하지만 그 작은 몸속에 모진 생각들만 쳐넣고 사는, 이런 부류들을 나는 잘 알고 있었다. 그들
작은 악당
나쁜 생각, 노동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드러냄 노동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가진 인물(인칭 시점)
은 우리가 남다른 노력과 자본·경영·경쟁·독점을 통해 누리는 생존을 공박하고, 저희들은 무서운
노동자들이 지배층에 대해 잘못된 비판을 한다고 생각('나'는 노동자의 현실과 고통을 이해하거나 공감하지 못함
독물에 중독되어 서서히 죽어 간다고 단정했다. 그 종독 독물이 설후 가난이라 하고 그들 모두

가 아버지의 공장에서 일했다고 해도 아버지에게 그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되었다. 그들은 저희
아버지의 처지에서 하는 '나'의 말

자유의사에 따라 은강 공장에 들어가 일할 기회를 잡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언제나 마음대로 공
노동자들이 스스로 공장에 왔고 떠날 수 있기에 회장에게 책임이 없다고 생각(편견에 사로잡힌 '나'의 잘못된 현실 인식)
장 일을 놓고 떠날 수가 있었다. 공장 일을 하면서 생활도 나아졌다. 그런데도 찡그린 얼굴을 펴

본 적이 없다. 머릿속에는 소위 의미 있는 세계, 모든 사람이 함께 웃는 불가능한 이상 사회가

들어 있었다. 그래서 늘 욕망을 억누르고, 비판적이며, 향락과 행복을 거부하는 입장을 취하고
노동자가 지향하는 세계에 대한 '나'의 비판적 인식

는 했다. 이상에 현실을 대여 보는 이런 종류의 엄숙주의자들은 생각만 해도 넌더리가 낫다. 그
노동자의 고통에 공감하지 못하고 경멸하는 '나'의 태도

중의 하나가 이제 살인까지 했는데 변호인은 그를 살려 내기 위해 그와 같은 종류의 인간을 증
노동자 중 하나
한지섭에 대한 '나'의 인식

인으로 불러냈다. 한지섭이었다. 그가 증언대로 올라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증인 한지섭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별을 받기로 맹세한다고 했을 때, 나는 그가 조금 큰
증인 선서 내용
증인 '한지섭'을 '작은 악당'보다 위험한 존재로
악당이라는 것을 직감으로 알았다. 남쪽 공장에서 올라왔다는 그는 손가락이 여덟 개밖에 안 되
온전하지 못한 신체를 신뢰 문제와 연결함

었다. 아버지의 공장에서 두 개를 잃었을 것이다. 콧등도 다쳐 납작하게 내려앉았고, 눈 밑에도

상처가 있었다. 나는 처음부터 그의 말을 듣지 않기로 했다. 증인으로 나온 사람에게 손가락이

여덟 개밖에 없다는 것 자체가 기분 나빴다. 잃은 두 개가 사물에 대한 그의 이해에 끼쳤을 영
장애가 있는 한지섭에 대한 편견과 무시, '나'의 비이성적 태도와 사회적 편견
향을 나는 생각했다. 그는 객관적인 눈까지 잃었다. 나는 눈을 감았다. 두 사람의 말을 듣지 않

소통 거부 한지섭과 변호인
기 위해 내가 떠올린 것은 호수의 물빛, 뜨거운 태양, 나무와 들풀, 거기 부는 바람, 호수를 가

르는 모터보트, 잔디 위에서의 스키, 이상한 베릇이 있는 여자아이, 그리고 아주 단 낮잠들이었
한지섭과 변호인의 말을 듣지 않기 위해 안락한 분위기의 풍경을 공상하는 '나'의 비인간적인 모습

다. 별통과 사슴 사육장이 보였다. 낮잠 뒤에 대할 식탁도 떠올랐다. 나는 독서를 하기로 했다.

미래 공학과 경제사가 내가 읽어야 할 책이었다. 아버지는 아들이 이런 책을 읽는 것을 좋아했

다. 뒤의 것은 이미 상당 부분을 읽었다. 월터 스콧이 인용된 곳을 읽다가 나는 웃었다. 그는 가
월터 스콧은 노동자의 입장만 생각하는 거짓말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

난한 노동자들을 혹사시키는 공장 지대를 돌아보고 이 나라는 언제 폭발할지 모를 폭발물로 꽉
노동자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공장에 대한 월터 스콧의 비판
차 있다고 개탄했다. 이런 허풍쟁이 도학자는 그 시대에도 있었던 모양이다. 그의 말을 전해 들
월터 스콧에 대한 '나'의 평가

은 공장주들은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



맨체스터나 브래드퍼드의 초기 발전 상황이 도학자의 눈에는 사회적 폭발을 향해 치닫는 미친 짓거리로 보였을 뿐이다. 그러나, 결국 궁금증 때문에 나는 졌다. 그 법정에 앉아 있는 한두 지섭이 무슨 말을 할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 때문에 그들의 말을 듣게 됨 사람의 말을 듣지 않을 수 없었다. 자기가 보기엔 그것은 강요된 행위였다고 지섭이 말했다. 변 영수의 살인이 자발적 범죄가 아니라, 구조적 억압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주장하는 증언 호인은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이 누가 강요했겠느냐고 묻고 그것을 좀 구체적으로 말해 달라고 부탁했다. 지섭은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을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의 증거로 삼 남매가 은강 공장에 나가 일해 버는 돈으로 난쟁이 가족이 처한 열악한 환경 → 지섭이 말하는 강요된 행위의 증거로 살아가는 난쟁이 일가의 비문화적인 생활과 난쟁이의 부인이 써 온 낡은 가계부를 들었다.

나는 하도 화가 나 그의 말을 잘 들을 수 없었다. 그는 콩나물값·소금값·새우젓값에서 두통·치통 구체적인 물가와 임금으로 노동자의 열악한 현실 제시 → 사실주의 소설의 고발적 성격 약값까지 읽어 내려가더니 도시 근로자의 최저 이론 생계비, 생산 공현도에 못 미치는 임금, 그리고 노동력 재생산이 어렵다는 생활 상태를 두서없이 주워섬겼다. 물론 아버지를 정점으로 한 거대한 은강 그룹의 부의 힘,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으로 계속해 받는 지원과 보호, 뛰어난 머리들로 구성된 고학력의 경영 집단, 그들이 추구하는 저임금과 높은 이윤, 그래서 이젠 누구 은강 그룹이 준 피해들을 나열 나 조금만 생각하면 알 수 있다는 인간 훼손, 자연 훼손, 거기다 신의 훼손까지 들어 이야기했다.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난쟁이 큰아들의 말은, 슬픈 일이지만 정말 옳은 것이며, 그가 아버지를 어떻게 할 마음을 가졌던 것은 아버지가 쓴 억압의 중심지에 바로 그가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변호인이 억압이란 말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그러자 아버지가 산하 회사 공장 종업원들에게 쓰는 억압은 언제나 생존비 또는 생활비와 상관이 있는 것이며, 따라서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경제적인 펜박을 의미한다고 지섭 억압을 단순한 개인의 문제로 보지 않고 구조적 문제로 인식하는 지섭의 발언 → 저항의 불가피성을 설명 이 말했다. 그는 계속해 이런 억압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은 있을 수 없으며, 그 억압을 정면으로 받는 중심에 있는 사람으로서 자기의 저항권 행사를 생각해 보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그는 바보이든가 생존을 포기한 자일 것이라고 말했다. 들을수록 화가 나는 말뿐이었다. 그의 말을 지섭의 말에 분노하는 '나' → 화자의 한계와 이 작품의 반어적 구조가 강조됨 들어 보면 이 세상 최고의 악당은 반대로 우리였다. 우리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파괴해 버렸고, 법 앞에 평등한 사람들을 사회적 신분에 따라 차별하는 사회적 특수 계급을 인정하였으며, 지섭의 발언을 요약하여 제시 많은 사람들에게서 인간적인 생활을 할 권리를 빼앗았다. 나는 앉아서 화를 놀렸다.

- 조세희, 「내 그물로 오는 가시고기」 -

핵심 정리

- 갈래: 현대 소설, 단편 소설
- 성격: 해학적, 향토적
- 주제: 농촌의 젊은 남녀가 보여주는 순박한 사랑
- 특징
 - ‘현재-과거-현재’의 역순행적 구성 방식을 취함.
 - 어리숙하고 순박한 인물을 서술자로 설정하여 작품의 해학성을 높임.
 - 비속어, 방언 등을 사용하여 사실성과 현장감을 높이고 해학적 분위기를 형성함.

전체 줄거리

나흘 전 마름네 딸 점순이가 소작인 아들 나에게 감자를 주었는데, 나는 이를 거절한다. 감자를 거절한 이후 점순이는 자꾸만 자기네 수탉과 우리 수탉을 싸움 붙였고, 덩치가 작은 우리 수탉은 점순네 수탉에 쪼여 피를 흘리고 만다. 나는 고추장을 먹여 싸움을 붙여 보지만 결국 또 점순네 수탉에게 지고 만다. 다음날 나무를 하고 내려오는 길에 점순네 수탉에게 쪼여 죽을 지경이 된 우리 수탉을 보고 나는 점순네 닭을 때려서 죽인다. 나는 닭을 죽인 게 걱정돼 점순에게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점순은 내게로 쓰려져 함께 동백꽃 속에 파묻히게 된다.

이해와 감상

이 작품은 서로 다른 계층에 속한 사춘기 남녀가 동백꽃 피는 농촌을 배경으로 하여 겪는 순수한 사랑과 갈등, 화해를 해학적으로 그리고 있다. 이 작품에서 갈등은 마름의 딸은 점순이와 소작인의 아들인 '나'의 신분적 차이에서 비롯된다. 신분의 차이는 두 사람 사이의 원만한 감정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을 계속 방해한다. 신분상 우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기도 하겠지만, 점순이의 대담한 애정 표현은 남녀 관계에 있어서 여성은 소극적이고 수동적이라는 편견을 일거에 깨뜨린 파격이 아닐 수 없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김유정 특유의 해학성을 찾아볼 수 있다.

이 밖에도 작가는 구어, 비어, 속어, 방언 등을 자유롭게 구사함으로써 계층 문제를 비롯한 1930년대 농촌의 생활상을 사실적으로 표현하였으며, 생동감 있고 개성 있는 인물들을 통하여 암울한 시대 상황을 유쾌하고 재치 있게 풀어 내고 있다.



핵심 정리

- 갈래: 단편 소설, 연작 소설, 사실주의 소설
- 성격: 사회 고발적, 사실적
- 주제: 노동자 계층의 삶의 고통과 좌절
- 특징
 - 연작 소설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의 12편 중 하나임.
 - 부정적인 인물을 화자로 설정하여 주제를 간접적으로 강화함.

전체 줄거리

은강 방직 공장에서 일하던 난쟁이 가족의 장남 영수는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 은강 그룹 회장을 살해하기로 결심하고 실행에 옮기지만, 회장과 똑같이 생긴 그의 동생을 오인하여 살해하는 데 성공할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르고 법정에 서게 된다. 은강 그룹 회장의 아들인 '나'는 사촌과 함께 재판에 참석하여 법정 안을 가득 메운 공장 노동자들을 모욕하며, 입에 담을 수 없는 악담을 퍼붓는다. 그는 영수를 비롯한 노동자들을 악당이라고 매도하며, 회사가 그들에게 일자리와 돈을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은혜를 모르는 배은망덕한 존재들이라고 비난한다. 변호인은 영수의 범행이 개인적인 원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사회 구조적인 문제와 강요된 상황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발생한 사건임을 변론하지만, 영수는 자신의 살해 의도를 굽히지 않고 결국 사형 선고를 받는다. 아버지의 부재를 슬퍼하며 괴로워하던 '나'는 아버지의 서재에서 경제사 관련 책을 읽으며 아버지의 귀환을 기다리다 잠이 들고, 꿈속에서 탐욕스러운 물고기들을 쫓아 그물을 던지지만, 탐욕스러운 물고기 대신 흥포한 가시고기 떼가 그물을 뚫고 달려들어 자신을 공격하는 끔찍한 악몽에 몸부림치며 깨어난다.

이해와 감상

황석영의 〈객지〉와 더불어 1970년대 리얼리즘 문학의 대표적인 성과로 평가받는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은 산업화 시대 부랑 노동자의 고된 현실을 생생하게 그려낸 작품이다. 이 작품은 현실에 대한 사실적인 묘사뿐만 아니라, 독특한 단문형 문체, 시점의 다각화, 그리고 단편 연작 형식을 통한 장편 구성 등 다양한 문학적 실험을 시도하여 깊이를 더했다. 1960년대 순수문학과 참여문학의 이분법적 대립을 넘어선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은 문학사적으로도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더욱이 작품은 문학적 완성도와 대중적 성공을 동시에 거두며 1970년대 소설 문학의 기념비적인 작품으로 자리매김했다. 이는 문학적 성취, 독자들의 호응, 작가의 시대적 소명 의식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결과라 할 수 있다.

연작 중 하나인 〈내 그물로 오는 가시고기〉는 영수가 은강 그룹 회장 동생을 살해한 이후의 이야기를 회장 손자 경훈의 시각으로 담아낸다. 경훈의 시점을 통해 자본가의 비윤리성과 계급 간의 첨예한 갈등, 그리고 자본가와 노동자 계층의 근본적인 화해 불가능성을 역설적으로 드러낸다. 특히 경훈의 아버지의 대사 "우리에겐 지켜야 할 게 많아"와 노동자들을 "나이보다 작은 몸뚱이에 감춘 적의와 오해 때문에 제대로 자라지 못할 아이들"로 단정하는 경훈의 시선은 이러한 계급 갈등을 선명하게 보여준다. 작품의 말미에 등장하는 경훈의 꿈, 즉 그물과 가시고기의 이미지는 자본가와 노동자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응축한다. 그물과 가시고기는 서로를 포획하고 포식당하는 먹고 먹히는 관계, 생존을 위해 끊임없이 대립하고 투쟁해야만 하는 관계를 의미하며, "사랑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었다."는 경훈의 깨달음은 이러한 냉혹한 계급 현실을 반영하는 씹쓸한 결론이라 할 수 있다.

아침에 나는 우리 공동의 예금 통장을 가난 체험하려 온 대학생 상훈이한테 주면서, 돈을 거두려면 먼저 그 주동자가 선뜻 = 상훈
가난한 노동자 돈을 내놓고 나서 남에게 손을 벌리는 게 순서이고, 그렇게 해야 일이 쉬울 거라고 일러 줬다. 얼마
간이라도 견히는 대로 빨리 갖다주라고 신신당부를 하고 공장에 나와서도 뭔가 좋은 일을 하고 있
다는 걸로 온종일 마음이 흐뭇했다. 내가 살고도 남아 남을 돋는다. 생각만 해도 자랑스러웠다.
남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이 자랑스러움 → '나'의 자부심
그러나 밤에 집에 돌아온 나는 기절을 할 만큼 놀랄밖에 없었다. 예금 통장에 잔고가 한 푼도
남아 있지를 않았다. 몽땅 털어 폐병쟁이한테 갖다줬다는 거였다. 삼만 원이 넘는 돈을 몽땅, 그
폐병 환자에게 전 재산을 기부한 사실에 대학 충격과 분노 → 갈등의 움이
게 어떤 돈이라고. 정말이지 미치고 환장을 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그럴 수는 없는 일이었고 나
어렵게 모은 생활비이자 생존의 수단
역시 미치고 환장을 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참아 줄 수 없는 일이었다.

"미안하게 됐어. 그렇지만 말야, 네가 몰라서 그렇지 누구한테 돈을 걸니? 다 말도 못 하게
지독한 가난뱅이들뿐인걸."

"뭐라구. 모두 가난뱅이들뿐이라구? 그럼 우린 뭐니? 우린 부자니, 응? 우린 부자야?"

나는 내 분을 내가 이기지 못해 그의 멱살을 잡고 질질 끌어다가 골통을 벽에다 콩콩 부딪쳐 주었다.
'나'의 분노와 상훈의 반응 → 아직 상훈이 부자집 아들이라는 것을 모르는 상황
그래도 그는 태평스레 히죽히죽 웃었다. 그는 삼만여 원 중 반이 넘는 돈이 자기 돈인데도 조금도 아까워
하지 않고 있었다. 그렇다고 그가 그 폐병쟁이를 뼈아프게 동정했던 것도 아니란 걸 나는 안다. 둘 다 그에
겐 조금도 절실하지 않았다. 바로 그것이 문제였다. 따라서 도와주고 싶은데 돈은 아깝고, 그래서 돈을 꺼
페병쟁이를 진심으로 걱정한 것도 아닌데 모든 돈을 준 것
냈다 넣었다, 이천 원을 내놓을까, 삼천 원을 내놓을까, 천 원 상관으로 십 분도 넘어 괴로워하고 도와줄까
말까로 한 시간도 넘어 애타심과 이기심이 투쟁을 하는 그 뼈아픈 갈등을 전연 겪지 않고, 현신짝 버리듯
나처럼 가난한 이들이 겪는 현실적 갈등
진정성 없이
무심히 삼만여 원을 그냥 버렸던 것이다. 그걸 깨닫자 나는 오한처럼 오싹 기분 나쁜 불안감을 느꼈다.
상훈에게서 이질감을 느끼는 모습
"넌 뭐니, 넌 뭐야? 이 새끼야. 넌 부자니, 부자야?"

나는 불안을 털어 버리려고 다시 악을 썼지만 그는 여전히 히죽히죽 웃기만 했다. 나는 제풀
에 지쳤다. 나는 기진맥진 지칠 대로 지쳤는데도 좀처럼 잠들지 못했는데 그는 곧 잠들었다. 나
경제적 사정의 차이에서 비롯된 '나'와 상훈의 대조적 모습
는 수명이 다 돼 침침한 20촉짜리 형광등 밑에서 그의 자는 얼굴을 곰곰이 들여다보았다. 도대
체 넌 뭐니? 삼만 원이 넘는 돈을 현신짝처럼 버리고 편히 잠들 수 있는 너는 뭐니. 기가 죽지
않는 건 좋다고 치자. 그렇지만 너의 그건 가난뱅이들의 억척스럽고 모진 그 청청함하곤 확실히
다르다. 전연 이질적인 것이다. 나는 깊이 전율했다. 태평하게 잠든 상훈에게서 이질감을 느끼는 '나'

[중략 부분 줄거리] 폐병에 걸린 공장 동료에게 너무 큰돈을 선뜻 줘 버린 상훈과 갈등을 벌인
후 '나'는 가끔 발작적으로 상훈에게 신경질을 부린다. 어느 날 아무런 예고도 없이 상훈이 집을
나가고, '나'는 공장에 나가 있는 동안 그가 돌아와 있을 것만 같은 확신으로 하루하루를 보낸
다. 그러던 어느 날 집에 와 보니 상훈이 돌아와 있었는데, 그는 대학 배지를 단 좋은 옷을 입고
두꺼운 책까지 들고 있었다. 그가 도둑질을 해서 가짜 대학생 행세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 '나'는



겁먹은 소리로, 미쳤냐며 상훈에게 악을 쓴다.

“여봐, 이러지 말고 이제부터 내가 하는 소리를 정신 차리고 똑똑히 들어. 나는 미치지도 않고 도둑놈은 더구나 아냐. 나는 부잣집 도련님이고 보시는 바와 같이 대학생이야. 아버지가 상훈의 고백과 공장에서 일한 경위 설명 좀 별난 분이실뿐이야. 아들자식이 너무 고생을 모르고 자라는 걸 걱정하셔서 방학 동안에 어디 가서 고생 좀 실컷하고, 돈 귀한 줄도 좀 알고 오라고 무일푼으로 나를 내쫓으셨던 거야. 알아듣겠어?”

어떻게 그걸 알아들을 수가 있단 말인가. 우리 어머니는 부자들이 얼마나 호강들을 하며 사나 상훈의 말을 이해할 수 없는 '나'에 대해 아는 척하기를 좋아했었다. 세상에 돈만 있으면 안 되는 게 없고 못 하는 게 없고, 인생 부자들에 대한 어머니의 이야기 회상의 온갖 열락이 돈 주위에 아양을 떨며 모여든다고 했다. 그렇지만 가난뱅이 짓을 장난삼아 해 상훈의 말을 이해할 수 없는 이유 보는 부자들에 대해선 들은 바가 없다.

“우리 아버진 좋은 분이야. 요즈음 세상에 보기 드문 분이지. 자식들에게 호강 대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하고 싶으셨던 거야. 덕택에 나는 이번 방학에 아주 소중한 경험을 할 수 있었지. 아버지 덕분에 귀한 경험을 했다는 상훈의 이기적 평가 → '나'에게 모열감을 줌 었지.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귀한 경험이었어.”

참, 생각난다. 인형 옷 만드는 집 아줌마가 텔레비전 연속극 애길 하면서, 재벌의 아들이 인생 공부 삼아 물장산가 뭔가 하는 얘기를 하던 것이 생각난다. 아무리 연속극이라지만 구역질 과거에 본 연속극의 장면 회상 → 상훈의 이야기 역시 구역질나는 일임을 드러냄 나는 얘기라고 생각했다. 도대체 가난을 뭘로 알고 즐네들이 희롱을 하려고 해. 부자들이 제 돈 갖고 무슨 짓을 하든 아랑곳할 바 아니지만 가난을 희롱하는 것만은 용서할 수 없지 않은가. 가난은 '나'에게 있어 자존심이기 때문

난한 계집을 희롱하는 건 용서할 수 있다순 치더라도 가난 그 자체를 희롱하는 건 용서할 수 없다. 더군다나 내 가난은 그게 어떤 가난이라고. 내 가난은 나에게 있어서 소명(召命)이다.

소명: 하나님이 시킨 일 → 가난을 체험의 수단으로 삼는 행위에 대한 비판 “아버지 만족하고 계셔, 내가 그동안 그 지독한 생활을 잘 견딘 걸. 그래서 친구분한테도 자 실제로 '나'가 살아가고 있는 생활을 '지독하다'고 표현함으로써 가난한 사람에 대한 존중이 없는 모습을 드러냄 식들을 그렇게 고되게 키우는 걸 권하실 모양이야. 실상 요새 있는 사람들, 자식을 너무 연하게 키우거든.”

맙소사. 이제부터 부자들 사회에선 가난 장난이 유행할 거란다. 기름진 영감님들이 모여 앉아, 자네 자식 거기 아직 안 보냈나? 웬걸, 지금 여권 수속 중이네. 누가 그까짓 미국 말인가, 가난을 희롱하는 부자들의 대화 모습을 상상하는 '나' → 가난에 대한 부자들의 천박한 인식을 드러냄 빈민굴 말일세 하고.

“그래서 아버지가 기분 좋아하시는 김새를 타 가지고, 네 얘기를 했어. 이런저런 빈민窟의 비 나에 대한 상훈의 생각과 평가가 드러남 → '나'의 자존심을 짓밟음 참한 실정을 말씀드리다가 대수롭지 않게 슬쩍 내비쳤지. 글쎄 하룻밤에 연탄 반장을 애끼하고 체온을 나누기 위한 남자를 한 이불 속에 끌어들이는 여자애가 다 있더라고 말야. 물론 끌려 들어간 남자가 나였단 소리는 빼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의외로 깊은 관심을 보이시고 집에 데려다 잔심부름이라도 시키다가 쓸 만하면 어디 야학이라도 보내자고 하시잖아. 좋은 기회야. 이 기회에 이런 끔찍한 생활을 청산해. 이건 끔찍할뿐더러 부끄러운 생활이야. 연탄을 애끼기 위해 '나'의 생활에 대한 상훈의 평가 → 타인의 삶을 함부로 평가하는 오만한 모습

남자를 끌어들이는 생활을 너도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돼.”

암 부끄럽고말고. 부끄럽다. 부끄럽다. 부끄럽다. 당장 이 몸이 수증기처럼 사라질 수 있으면
상훈이 가난을 희롱한 것에 대해 느끼는 모욕감 수치심
사라지고 싶게 부끄럽다. 부끄럽다.

“자, 돈 여기 있어. 다시 데리러 올 테니 웃가지라도 준비해. 당장이라도 데리고 가고 싶지만
상훈의 시혜적 태도
그런 꼴로 갈 순 없잖아.”

나는 돈을 받아 그의 얼굴에 내동댕이치고 그리고 그를 내쫓았다. 여섯 방의 식구들이 맨발로
상훈에 대한 '나'의 분노 뛰어나와 구경을 할 만큼 목이 터지게 악다구니를 치고 갖은 욕설을 퍼부어 그가 혼비백산 도망
치게 만들었다.

“가엾게시리, 미쳤구나.” ‘나’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함

그는 구두짝을 주섬주섬 집어 들고 도망치면서 중얼거렸지만 아마 곧 나에 대해 잊어버리게 될 것이다. 폐병쟁이를 잊어버리듯이 쉬 잊어버릴 것이다.

나는 그를 쫓아 보내고 내가 얼마나 멋떳하고 용감하게 내 가난을 지켰나를 스스로 뿐내며 내 방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내 방은 좀 전까지의 내 방이 아니었다. 빗발로 얼룩얼룩 얼룩진 채 한 쪽이 축 처진 반자지, 군데군데 속살이 드러난 더러운 벽지, 지퍼가 고장 난 비닐 트렁크, 절뚝발이 날림 포마이카상, 제 몸보다 더 큰 배터리와 서로 결박을 짓고 있는 낡은 트랜지스터라디오, 가난을 보여주는 집기들을 나열하여 열악한 상황을 보여줌(열거)
우그려진 양은 냄비와 양은 식기들——, 이런 것들이 어제와 똑같은 자리에 있는데도 어제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들은 다만 무의미하고 추했다. 어제의 그것들은 서로 일사불란 나의 가난을 구성하고 있었지만, 지금 그것들은 분해 되어 추한 무용지물일 뿐이었다. 판잣집이 헐리고 나면 판잣집을 구성했던 나무 판매기, 슬레이트, 진흙덩이, 시멘트 벽돌, 문짝 들이 무의미한 쓰레기 더미가 되듯이 내 가난을 구성했던 내 살림살이들이 무의미하고 더러운 잡동사니가 되어 거기 내 가난한 생활을 비참하게 받아들이게 된 ‘나’ → 내 방을 다르게 느낀 이유
동댕이쳐져 있었다. 나는 그것들을 다시 수습할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았다. 내 방에는 이미 가난 조차 없었다. 나는 상훈이가 가난을 훔쳐 갔다는 걸 비로소 깨달았다. 나는 분해서 이를 부드득 상훈이 가난을 훔쳐간 것에 대한 절망과 분노 갈았다. 그러나 내 가난을, 내 가난의 의미를 무슨 수로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인가.

나는 우리 집안의 물락의 과정을 통해 부자들이 얼마나 탐욕스러운가를 알고 있는 터였다. 아 부자들의 탐욕에 대한 '나'의 인식 혼아홉냥 가진 놈이 한 냥을 탐내는 성미를 알고 있는 터였다. 그러나 부자들이 가난을 탐내리라 가난을 체험의 대상으로 삼는 부자들의 행태 비판 고는 꿈에도 못 생각해 본 일이었다. 그들의 빛나는 학력, 경력만 갖고는 성이 안 차 가난까지를 훔쳐다가 그들의 다재로운 삶을 한층 다채롭게 할 에피소드로 삼고 싶어 한다는 건 미처 몰랐다.

나는 우리가 부자한테 모든 것을 빼앗겼을 때도 느껴 보지 못한 깜깜한 절망을 가난을 도둑 맞고 나서 비로소 느꼈다.

나는 쓰레기 더미에 쓰레기를 더하듯이 내 방 속에, 무의미한 황폐의 한가운데 몸을 던지고 쓰레기: 살림살이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도 의미 절망감에 빠진 '나'의 모습 뼈가 저린 추위에 온몸을 내맡겼다.

- 박완서, 「도둑맞은 가난」 -



핵심 정리

- **갈래:** 현대 소설, 단편 소설
- **성격:** 풍자적, 비판적, 역설적
- **주제:** 물질만능주의 세태에 대한 비판
- **특징**
 -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인물이 자신이 겪은 사건들을 직접 들려주고 있음.
 - 1970~80년대 대한민국 사회의 빈곤 문제와 인간의 잔인함을 다루고 있음.
 - 여성 노동자들의 삶과 애환을 생생하게 그려냄.

줄거리

다니던 회사의 폐업으로 아버지가 실직하자 어머니는 친구에게 돈을 빌려 아버지에게 사업을 하게 한다. 그러나 아버지의 사업마저 실패를 하게 되고 ‘나’의 집은 산동네 전셋집으로 이사한다. 가난을 인정하기 싫었던 어머니는 ‘나’를 제외한 가족들과 함께 연탄가스를 맡고 스스로 생을 마감한다. 그 후 ‘나’는 어머니와 달리 가난을 회피하지 않고 봉제 공장에 다니면서 미싱사가 될 꿈을 꾸며 열심히 산다. 도금 공장에 다니는 상훈을 만난 ‘나’는 생활비 절약을 위해 그와 동거를 시작한다. 상훈의 공장 사람이 폐병으로 쓰러지자 ‘나’는 상훈에게 그를 도와주라고 예금 통장을 내어 준다. 그런데 상훈은 전 재산과도 같은 예금 통장의 잔액 전부를 인출해서 병자에게 준다. 사건 이후 ‘나’는 상훈을 들통하고, 말없이 한동안 가출했던 상훈은 부잣집 도련님이자 대학생의 모습으로 다시 나타나서, 아버지의 지시에 따라 이른바 가난 체험을 했다는 사실을 털어놓는다. 옷을 사 입을 돈을 주면서 자기 집에 들어가 잔심부름이라도 하라는 상훈을 쫓아내고 방으로 들어온 ‘나’는 상훈에게 자신의 가난을 도둑맞았다는 것을 깨닫는다.

이해와 감상

이 작품은 1975년에 발표된 단편 소설로, 급속한 경제 발전을 추진하던 시대에 가치관이 물질에 경도되어 벼린 사람들의 삶을 비판적으로 그리고 있다. 특히 가난을 재미 삼아 경험하면서 가난한 사람의 삶에 끼어들어 자존감에 깊은 상처를 남기는 일부 부유층의 비도덕적 행태를 고발하고 있다.

덥다.

몇 도인지 백십 도 혹은 그 이상인지도 모르겠다.

여름날 무더운 감옥의 상황→ 자신만 생각하고 타인의 고통을 요구하게 됨
매일 아침 경험하는 바와 같이 동쪽 하늘에 떠오르는 해를, '저 해가 이제 곧 무르녹일 테지.'

생각하면 그 예언을 맞히려는 듯이 해는 어느덧 방 안을 무르녹인다.

다섯 평이 좀 못 되는 이 방에, 처음에는 스무 사람이 있었지만, 몇 방을 합칠 때에 스물여덟
감방 사람들이 생존 본능에 힘써 이기적인 생각을 하는 공간

사람이 되었다. 그때에 이를 어찌하노 하였다. 진남포 감옥에서 공소*로 넘어온 사람까지 하여

서른네 사람이 되었을 때에 우리는 한숨을 쉬었다. 그러나 신의주와 해주 감옥에서 넘어온 사람

까지 하여 마흔 한 사람이 된 때에 우리는 한숨도 못 쉬었다. 혀를 채였다.

20명, 28명, 34명, 41명이 수용된 감옥의 상황을 접종적으로 제시

곧 처마 끝에 걸린 듯한 뜨거운 해는 그침 없이 더위를 보낸다. 몸속에 어디 그리 물이 많았

던지 아침부터 그침 없이 흘린 땀은 그냥 멎지 않고 흐른다. 한참 동안 땀에 힘없이 앓아 있던

나는 마지막 힘을 내어 담벽을 기대고 흐늘흐늘 일어섰다. ⑦ 지옥이었다. 빼빼이 앓은 사람들
작품 속 서술자가 등장하는 1인칭 주인공 시점

감옥의 상황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말

은 모두들 힘없이 머리를 숙이고 입을 송장같이 벌리고, 흐르는 침과 땀을 씻을 생각도 안 하고

먹먹히 앓아 있다. 등그렇게 구부러진 허리, 맥없이 무릎 위에 놓인 팔, 뚱뚱 부은 짓퍼런 얼굴

에 힘없이 벌려진 입, 정기 없는 눈, 흘어진 머리와 수염, 모든 것은 죽은 사람이었다. 이것이

과연 아침에 세면소까지 뛰어갔으며 두 시간 전에 점심 먹느라고 움직인 사람들인가. 나의 곤하

여 둔하게 된 감각에도 눈이 쓰린 역한 냄새가 쏟다.

구체적인 장면 묘사로 인물들이 처한 상황을 보여주면서 이기적인 행동의 개연성 부여

그들은 무얼 하여 여기 왔나. 바람 불고 잘 자리 있고 담배 있는 저 세상에서 무얼 하려 여기

왔나. 사랑스런 손주가 있는 사람도 있겠지. 예쁜 아내가 있는 사람도 있겠지. 제가 벌어먹이지

않으면 굽어 죽을 어머니가 있는 사람도 있겠지. 그리고 그들은 자유로 먹고 마시고 자유로 바

람을 쏘이고 자유로 자고 있었을 테다. 그러면 그들이 어떤 요구로 여기를 왔나.

감방 안에 온 사람들이 평범한 사람일 것이라는 추측을 함 (열거법)



그러나 지금의 그들의 머리에는, 독립도 없고 자결도 없고 자유도 없고 사랑스러운 아내나 아들

감방에 들어온 이유 제시 → 극한 상황에서는 이 모든 가치가 상실됨

이며 부모도 없고 또는 더위를 깨달을 만한 새로운 신경도 없다. 무거운 공기와 더위에게 괴로
기족이라는 보편적 가치가 상실되는 감방 안의 상황

움받고 학대받아서 조그맣게 두개골 속에 응크리고 있는 그들의 피곤한 뇌에 다만 한 가지의 바

람이 있다 하면, 그것은 냉수 한 모금이었다. 나라를 팔고 고향을 팔고 친척을 팔고 또는 뒤에

생존의 최소 조건, 가장 필요한 것

이를 모든 행복을 희생하여서라도 바꿀 값이 있는 것은 냉수 한 모금밖에는 없었다.

물 한 모금도 제대로 마실 수 없는 극한 상황

[중략 부분 줄거리] '나'를 비롯한 감방 사람들은 공판 갈 날을 기다리지만, '나'에게는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다. 그러던 중 영원 영감을 포함한 서너 사람이 공판을 받으려 재판소에 다녀온

다. 공판 받으려 가는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상황

“판결은 어찌 되었소?”

영감은 대답이 없었다. 그의 입은 바늘로 호라매지나* 않았나? 그러나 한참 뒤에 그는 겨우
= 바늘로 꿰맨 듯 말이 없다

대답하였다. 그의 목소리는 대단히 떨렸다.

“태형(笞刑)* 구십 도랍니다.”

나이든 영감으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태형을 달갑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

“거 잘됐구려! 이제 사흘 뒤에는, 담배두 먹구, 바람두 쏘이구…… 난 언제나…….”

‘나’는 영감을 부러워함

“여보! 잘돼시오? 무어이 잘된단 말이오? 나이 칠십 줄에 들어서서 태 맞으면 — 말하기두 싫

소. 난 아직 죽긴 싫어! 공소했쉐다!”

그는 별컥 성을 내어 내게 달려들었다. 그러나 그의 말을 들은 뒤의 내 성도 그에게 지지를

영감이 화를 내는 이유 : 죽을지도 모를 태형을 받았는데 잘 되었다고 했기 때문
않았다.

‘나’도 영감을 비난함

“여보! 시끄럽소. 노망했소? 당신은 당신이 죽겠다구 걱정하지만, 그래 당신만 사람이란 말이

오? 이 방 사십여 인이 당신 하나 나가면 그만큼 자리가 넓어지는 건 생각지 않소? 아들 둘 다

총 맞아 죽은 다음에 뒤상* 하나 살아 있으면 무얼 해? 여보!”

극한 상황에서 자신만을 생각하는 인간의 추악한 면모가 드러남

나는 곁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향하였다.

“여게 태형 언도를 공소한 사람이 있답니다.”

나는 이상한 소리로 깔깔 웃었다.

나중에 태형을 받아들이게 만든 ‘나’는 자책함

다른 사람들도 영감을 용서치 않았다. 노망하였다. 바보로다. 제 몸만 생각한다. 내쫓아라. 여

러가지의 폼이 일어났다.

인륜을 저버리는 감방 사람들의 비윤리적인 모습

영감은 대답이 없었다. 길게 쉬는 한숨만 우리의 귀에 들렸다. 우리들도 한참 비웃은 뒤에는

기진하여 잠잠하였다. 무겁고 괴로운 침묵만 흘렀다.

바깥은 어느덧 어두워졌다. 대동강 빛과 같은 하늘은 온 세상을 덮었다. 그 밑에서 더위와 목
마름에 미칠 듯한 우리들은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다. 우리들의 입은 모두 바늘로 호라매지나
않았나.

그러나 한참 뒤에 마침내 영감이 나를 찾는 소리가 겨우 침묵을 깨뜨렸다.

“여보.”

“왜 그러오?”

“그럼 어떡하란 말이오?”

“이제라도 공소를 취하해야지!”

‘당신이 나가야 감옥이 넓어진다’는 이기적이고 비도덕적인 판단

영감은 또 먹먹하였다. 그러나 좀 뒤에 그는 다시 나를 찾았다.

영감에게는 목숨이 걸린 일

“노형 말이 옳소. 내 아들 두 놈은 정녕코 다 죽었잖아. 난 나 혼자 이제 살아서 무얼 하겠소?

취하하게 해 주소.”

영감 – 타의에 의해 상고 취하

“진작 그럴 게지. 그럼 간수 부릅니다.”

“그래 주소.”

영감은 떨리는 소리로 말하였다.

나는 패통*을 쳤다. 간수는 왔다. 내가 통역을 서서 그의 뜻(이라는 것보다 우리의 뜻)을 말하

매 간 수는 시끄러운 듯이 영감을 끌어내 갔다.

자리에 돌아올 때에 방 안 사람들의 얼굴을 보니, 그들의 얼굴에는 자리가 좀 넓어졌다는 기

쁨이 빛나고 있었다.

감방 안의 자리가 넓어졌다는 생각에 사람들이 기뻐하는 반응 → 사람들의 이기적 속성을 보여줌

- 김동인, 「태형」

* 공소: ‘항소’의 옛말.

* 호라매지나: 훌쳐매지나. 풀리지 아니하도록 단단히 잡아매지나.

* 태형: 오형 가운데 죄인의 불기를 작은 형장으로 치던 형벌.

* 뒤상: ‘늙은이’의 방언.

* 패통: 교도소에서, 재소자가 용무가 있을 때에 담당 교도관을 부를 수 있도록 벽에 마련한 장치.



핵심 정리

- 갈래: 단편소설
- 배경: 시간적 - 3·1 운동 직후의 무더운 여름, 공간적 - 비좁은 감옥 안
- 시점: 1인칭 주인공 시점
- 주제: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는 인간의 이기심
- 특징
 - 객관적이고도 사실성을 지닌 문체
 - 간결한 호흡의 문장
- 구성
 - 발단: 비좁고 더운 감방 안에서 ‘나’는 괴로워함.
 - 전개: 무더위 속에서 거창한 가치보다는 냉수 한 모금과 맑은 공기를 바람.
 - 위기: 영원 영감의 공소 사실을 들은 ‘나’는 그를 몰아세워 공소를 포기하게 함.
 - 절정: 오랜만에 목욕을 하고 감방으로 돌아왔는데 누군가의 비명이 들림
 - 결말: 기운 없는 신음 소리가 영원 영감의 소리임을 알고 ‘나’는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

전체 줄거리

비좁은 감방 안에서 ‘나’는 미결수로서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그 감방에는 ‘나’를 비롯하여 마흔 명이 넘는 죄수들이 매우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바깥 공기를 썰 수 있다는 이유로 죄수들은 공판을 기다린다. 한 노인이 공판에서 태형 90대의 판결을 받고 공소하자 ‘나’를 비롯한 감방 사람들은 노인이 감방을 떠나면 자리가 조금이나마 넓어진다는 이유로 노인의 행동을 비난하고, 노인은 결국 공소를 포기한 채 태형에 처해진다. 태형을 당하는 노인의 비명 소리를 들으면서 ‘나’는 이기심 때문에 노인을 사지로 내몬 것에 대해 괴로움을 느낀다.

이해와 감상

이 작품은 일제 강점기의 감옥을 배경으로 극한 상황 속에서 드러나는 인간의 이기심을 보여 주고 있다. 더운 여름날 수인으로 꽉 찬 감방에서 감방 안 사람들은 한 사람이라도 줄어서 차지할 수 있는 공간이 조금이나마 넓어지기를 바란다. 그런데 태형을 받고 감방에서 나갈 줄 알았던 노인이 태형 언도를 공소 한 사실을 듣게 되자 감방 안 사람들은 노인을 매도하여 태형장으로 내몰게 된다. 이를 통해 오로지 충동적이고 본능적인 욕구에 따라 사고하는 인간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추해질 수 있는지를 사실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주인공

2026 수능완성 실전 모의고사 5회 18~21

산업 사회 혹은 기술 문명의 꽃이라 불리는 자동차를 팔려 다니다 보면 그때마다 돈의 가치와 자동차의 비유 신분 : 자동차 판매원 위력을 절감하게 된다. 좀 더 나이를 먹으면 나는 무엇이 돼 있을 것인가. 어느 대리점의 점장쯤 자본주의 사회의 경제적 가치 '나'의 미래 상상 돼 있겠지. 그렇다면 '다른 더 무엇'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정녕 사라진 것일까.

현실에 대한 위기 의식 / 자문자답을 통한 자신의 삶 성찰

그래서 어느 날 나는 걷기로 하였다. 며칠 전에 판매한 신차를 주인에게 배달하고 나와 버스 → 새로운 가능성이 사라진 현실에서 찾은 탈출구 를 타려고 정류장에 서 있다가 나는 걸어서 가 보기로 했다. 집까지 다섯 시간쯤 걸리겠지. 하지 평소와는 다른 행동 만 나는 걷기 시작했다. 그 참에 나 자신이 자동차가 되기로 했다. 그런 생각을 하며 무작정 걸었다. 그날따라 날씨는 매우 흐리고 추웠으며 나는 가벼운 양복 차림이었다. 한 시간쯤 걸어가 걸기가 불편한 상황 자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발바닥에는 이미 물집이 잡혀 있었고 무릎과 허리는 부러질 듯 아파 왔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통증이 이상한 쾌감이 되어 육체를 자극했다. 이따금씩 휴대폰 걸으면서 '나'가 겪은 변화 : 육체적 고통 → 쾌감 이 울렸으나 나는 받지 않았다. 두 시간을 걸었을 때 눈은 함박눈으로 변해 있었다. 그때 내 입 외부의 단절과 상황에 대한 몰입에서는 저절로 비죽비죽 웃음이 흘러 나오고 있었다. 내가 왜 웃고 있는지 모르지만 자꾸만 웃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하면서 처음으로 자유와 기쁨을 만끽했기 때문 음이 터져 나왔다. 생전 처음 느껴 보는 나만의 생생한 자유, 그 훌훌한 기쁨. 그렇게 실성한 사 '나'가 웃은 이유 : 평소 '나'가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없었음을 암시 람처럼 웃으면서 나는 계속 걸어갔다. 걷다 보니 완전히 잊고 있었던 사춘기 때의 내 첫사랑과 정신적 해방감을 느끼는 '나'

무더위처럼 고달팠던 유년과 내내 괴롭기만 했던 청춘의 나날과 그 후 살아온 생애가 눈앞에 눈 걷는 동안 추억을 떠올리는 등 자신의 생애를 돌아보며 회상적 성찰

발처럼 드리워졌다.

그날 밤 자정에야 나는 외국으로 파병 나갔다 귀국한 병사처럼 집에 도착했다. 아내는 나를 다섯 시간 동안 걸어 집에 도착한 자신의 비유(직유법) → 지치고 초췌한 모습 보자 웬지 겁먹은 표정으로 뒤로 한 발짝 물러섰다. 그래서 나는 내가 걷기에 성공한 것을 알았 자신이 바뀐 것을 확인

다. 아내가 더듬거리며 물었다.
아내의 불안감

"무슨 일 있었어요?"

"일? 그래, 오늘 사건이 하나 터지긴 했지." / "사건이라뇨?"

"그때부터 나는 걷기 시작했어. 그리고 다섯 시간을 걸어 방금 집에 도착한 거야."

→ 사건의 요약적 제시

아내는 손을 더듬거리며 스웨터의 단추를 채우고 나서 떨리는 소리로 다시 물었다.

평소와 다른 '나'의 모습에 당황하는 아내
"왜 그 면 길을 걸어서 온 거죠?"

아내의 의문 제기



“나도 어쩔 수 없었어. 걷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던 거야. 몸 안에, 입안까지 모래가 가득 차서
모래 : 일상에서 느끼는 삶의 무게

걷지 않고는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았어. 그래서 모래를 가득 실은 트럭처럼 나는 무겁고 느리게
걸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현실의 무게로 숨이 막힌 '나'의 비유

걸었어. 걷다 보니 신기하게도 조금씩 숨통이 트이고 몸이 가벼워지더군. 걷고 있는 동안 모래
걸기의 효과 : 삶의 무게를 내려놓을 수 있었

가 조금씩 풍구멍으로 빠져나갔나 봐.”

아내는 늙은 식모 같은 얼굴로 식탁에 밥을 차려 놓은 뒤 더 이상 아무 말도 없이 방으로 들
남편의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아내

어가 버렸다. 그로부터 며칠 뒤, 나는 새벽 다섯 시에 깨어나 정오까지 무려 일곱 시간을 쉬지

않고 걸었다. 그 후 약 열흘 간격을 두고 걷는 일을 되풀이했다.

일상화된 걸기 → 그 만큼 삶의 무게를 내려놓기 위한 노력
나는 우비를 둘러쓴 대학생들과 빗속을 걸어갔다. 장례 행렬처럼 모두가 무겁게 입을 다물고

장면 전환 : 제주도에서 걸던 과거의 추억 떠올림 걸기 힘든 상황의 비유
있었다. 두 시간을 걸어갔을 때 그들은 길가에 앉아 쉬었고 나는 그들을 지나쳐 내처 걸어갔다.

먼저 가는 내게 그들이 일어서서 말없이 고개를 숙여 인사를 했다. 태어나서 그때 처음 눈물이

눈물 : 감정의 정화

란 걸 흘려 보았다. 길가엔 소귀나무가 사열하듯 끝도 없이 서 있었다. 그 틈새로 비 내리는 바
걸으면서 '나'의 감정 정화됨 나무가 '나'를 겸연하는 것으로 표현 / 걸는 길의 풍경

다가 보였다. 어떤 사내가 아이를 등에 업고 걸어가고 있었다. 나는 그를 앞질러 바다 옆을 따라

걸어갔다. 멀리 흰 풍력 발전기들이 저마다 거대한 팔랑개비처럼 돌고 있는 것을 바라보며. 가

다 보니 또 웬 시골 아낙 하나가 찢어진 우산을 쓴 채 걸어가고 있었다. 그 옆을 스쳐 갈 때 나
↳ '나'와 동일한 상태의 인물

는 그녀가 울고 있음을 눈치챘다. 나는 모른 척 앞서갔다. 걷고 있는 것은 나 자신이면서 동시에
자아 상실의 문제가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누구나 겪는 보편적인 문제임을 암시

내가 아니었고 한편 내가 아니면서도 분명 나 자신이었다. 그렇게 나 아닌 나와 나인 내가 서로
본연의 모습을 잊고 살아가는 현실적 자아 본연의 모습인 본질적 자아

마주 보며 지치지 않고 걸었다. 그리하여 걸기가 끝나 마침내 출발한 지점으로 돌아오면 그 둘

↳ 걸기를 통해 상실된 자아를 찾고 본래의 모습을 회복한 '나' → 걸기를 통해 분열된 자아가 새로운 하나로 통합됨
이 새로운 하나가 되어 있었다. 삶은 그렇게 거듭되는 것. 그때 밤바다엔 수십 척의 오징어, 한

삶의 본질에 대한 깨달음

치집이 배들이 축하라도 해 주듯 집어등을 밝히고 일렬로 떠 있는 것이었다.

걸기가 끝난 뒤 본질적 자아를 회복하고 새로운 자신을 형성하게 된 것에 대한 나의 기쁨과 뿌듯함의 비유

(중략)

“걷는 이유가 도대체 뭐니까? 아까 물어봤을 때 대답을 하지 않았잖아요.”

거래에서 만난 낯선 사내가 나에게 하는 질문

나는 사내를 돌려보내기 위해 머리에 떠오르는 대로 두서없이 내뱉었다.

'나'가 대답하는 이유

“이유요? 그런 건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걸을 뿐이죠. 다만 주기적으로 몸에 명령이 내

걸는 데 이유가 없다 → 본능적 무의식적 행위로 자연스러운 것
려옵니다. 이제 또 걸으라고 하는 소리가 몸속에서 들려온다는 거죠. 어느 날 새벽 나는 그 소리

걸기는 자본이 지배하는 삭막하고 비인간적인 현실에서 자아 상실의 상황을 극복하려는 것
를 듣고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에 들어가 거울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죠. 얼굴에 펴린

이끼가 두툼하게 끼어 있더군요. 뿐만 아니라 온몸이 생선 비늘로 뒤덮여 있더군요.”

퍼런 이끼, 생선 비늘 : 본연의 모습이나 자아를 잃어 가는 것을 시각적으로 형상화

“그, 그게 눈에 보이더란 말인가요?”
자아 상실의 상황

“보입니다.” / “끔찍하군요.”

그때마다 나는 걷지 않으면 안 되었다.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고객과 카페숍에서 차를 마시
일상에서 겪는 자아 상실과 정체성 혼란에서 벗어나려는 나의 몸부림이자 노력

다가, 때로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파킹을 하고 있다가도 나는 또 걸으라고 하는 소리가 몸

속에서 들려오기만 하면 지체 없이 배낭을 꾸려 길로 나갔다. 걸어가면서 나는 나를 닮은 종족
일상화된 걸기

들이 이따금씩 내 옆을 스치고 지나가는 것을 느낌으로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그들에게 말을 걸

나와 같은 상태의 인물 목격 → 자아 상실의 문제가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누구나 겪는 보편적 문제임을 암시
어 본 적은 없었다. 그들도 내게 아는 체를 하거나 길을 막고 서서 말을 붙이는 법이 결코 없었

타인과 단절된 삶을 사는 현대인

다. 하지만 그들과 나는 분명히 서로를 알아보았다.
현대인들이 자아 상실의 상황을 겪고 있는 현대인들

- 윤대녕, 「낯선 이와 거리에서 서로 고함」



핵심 정리

- 갈래: 단편소설, 현대소설
- 성격: 서정적, 성찰적, 상징적
- 시점: 1인칭 주인공 시점
- 주제 : 현대 사회에서 자기 존재에 대한 불확실함과 정체성의 혼란 속에서 느끼는 개인의 불안과 소외감
- 특징:
 - 걷기라는 일상적 행위를 자기 성찰과 존재 탐색의 상징적 여정으로 그림.
 - 현대인의 소외와 불안, 내면의 혼란을 섬세한 심리 묘사와 상징적 이미지로 드러냄.
 - 돈으로 타인의 시간을 사는 에피소드를 통해 인간관계의 단절과 소통의 갈망을 비판적으로 보여줌.
 - ‘나’와 ‘나 아닌 나’의 이중적 자아를 통해 정체성의 혼란과 통합의 가능성을 탐색함..
 - 침묵 속의 연대와 자연 풍경의 묘사를 통해 내면적 치유와 해방을 강조함.

전체 줄거리

「낯선 이와 거리에서 서로 고함」은 자동차 판매원으로 살아가는 ‘나’의 반복되는 일상과 자본주의적 가치에 대한 회의,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 속에서 시작된다. 어느 날 주인공은 자동차를 배달한 뒤 집까지 다섯 시간 넘게 걷기로 결심한다. 걷는 동안 주인공은 어린 시절, 첫사랑, 고통스러웠던 청춘 등 자신의 과거를 떠올리며, 육체적 고통과 함께 점차 내면의 해방감과 자유를 느낀다. 걷는 행위는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자기 존재를 성찰하고 일상에서 벗어나려는 몸부림이 된다. 이후 주인공은 걷기를 반복하며, 우연히 길에서 돈을 주고 타인의 시간을 사서 대화를 나누려는 낯선 인물을 만난다. 이 인물은 돈으로 남의 시간과 관심을 사려 하지만, 주인공과의 대화는 어색하고 단절된 채로 이어진다. 이 만남은 현대 사회에서 인간관계마저 자본에 종속되고, 진정한 소통이 어려워진 현실을 상징한다. 주인공은 걷는 과정에서 자신과 닮은 이들이 곁을 스쳐 지나감을 느끼지만, 누구와도 제대로 말을 섞지 않는다. 그렇게 걷기와 타인과의 만남을 반복하며, 주인공은 내면의 상처와 불안을 마주하고, 자기 존재의 의미와 정체성을 새롭게 탐색한다. 마침내 집에 돌아온 주인공은 이전과는 달라진 내면을 자각하며, 일상으로 돌아가지만 걷기를 통해 얻은 자유와 치유의 경험을 간직하게 된다.

이해와 감상

「낯선 이와 거리에서 서로 고함」은 일상에 지친 자동차 판매원인 ‘나’가 걷기를 통해 자기 성찰과 해방을 경험하는 한편, 돈을 주고 타인의 시간을 사려는 인물을 만남으로써 현대인의 소외와 단절, 그리고 소통의 갈망을 복합적으로 그려낸 소설이다. 걷기와 타인과의 만남, 그리고 돈으로 환산되는 시간은 모두 현대인의 상실된 정체성과 관계의 위기를 상징하며, 작품은 자기 내면으로의 여행과 타자와의 관계 맺기라는 두 축을 통해 존재의 의미와 연대를 탐색한다.

“불쌍한 것…….” 대상 = 1. 외삼촌, 2. 나, 3. 외할머니 자신

혼잣말을 남기면서 외할머니는 내 곁을 떠났다. 구겨진 무명 치맛자락을 소리 없이 끌면서 마 어린동안 루로 나서는 외할머니의 뒷모습을 나는 실눈을 뜨고 바라보았다. 방금 그 중얼거림이 누구를 가 리키는 것인지는 모른다. 불쌍한 사람은 내 주위에 너무 많았다. 우선 일선에서 전사한 외삼촌 이 그렇고, 사실은 나 역시도 몹시 불쌍한 처지에 있었다. (형사한테서 양과자를 얻어먹은 사건 이후로 나는 근 달소수간이나 줄곧 울안에만 틀어박혀 근신하면서 근신할 것을 명령한 아버지 한 달 남짓 와 용서할 권한을 가진 할머니의 눈치를 살피는 신세였다.) 그러나 가장 불쌍한 사람은 바로 외 => ‘나’가 양과자를 얻어먹고 뱀치산 삼촌에 대한 정보를 쳤다고 생각 할머니 자신이었을지도 모른다. 마루 끝에 앉아서 구름에 덮인 전지산 근방을 바라보는 외할머니의 모습은 몹시도 허전해 보였다. 전사 통지서를 받던 날 저녁에 본 강하고 두렵던 모습은 도 외삼촌이 전사한 날 외할머니의 모습에 다한 ‘나’의 주관적 시선 무지 찾아볼 수 없었다. 이젠 시들 대로 시들어 먼산바라기로 오두마니 앉아 있는 초라한 할멈 하나가 있을 뿐이었다. 고역에서 해방된 기분은 그 측은한 모습으로 하여 금세 지워지고 말았 힘들고 어려운 일 내가 어려움에서 벗어난 기분 외할머니의 모습 다.

(중략)

어머니나 이모는 그래도 괜찮은 편이었다. 무엇보다 우려되는 건 할머니와 외할머니 간의 불
(중략 내용 : 어머니와 이모가 외삼촌의 죽음으로 마음고생함 국군이었던 외삼촌과 뱀치산인 삼촌으로 인한 갈등 화였다). 외삼촌과 이모를 공부시키기 위해 살림을 정리해서 서울로 떠났던 외가가 어느 날 보통

이를 꾸려 들고 느닷없이 우리들 눈앞에 나타났을 때, 사랑채를 비우고 같이 지내기를 먼저 권 전쟁 중 피란 온 외갓집 가족 한 사람은 할머니였다. 난리가 끝나는 날까지 늙은이들끼리 서로 의지하며 살자는 말을 여러 번 가족 공동체의 들을 수 있었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두 사돈댁은 사실 말다툼 한번 없이 의좋게 지내 왔었다) 사랑과 유대가 있었음

수복이 되어 원장을 두르고 설치던 삼촌이 인민군을 따라 어디론지 쫓겨 가 버리고 그때까지 대 공산군에게 빼앗긴 땅을 되찾음 밭 속에 굴을 파고 숨어 의용군을 피하던 외삼촌이 국군에 입대하게 되어 양쪽에 다 각기 입장 을 달리하는 근심거리가 생긴 뒤로도 곁에 두드러진 변화는 없었다. 그러면 두 분 사이에 열추 대립적 상황에서도 잘 지내는 듯한 모습 금이 가기 시작한 것은 저 사건——내가 낯모르는 사람의 꼬임에 빠져 과자를 얻어먹은 일로 불화의 원인: ‘나’가 형사에게 과자를 얻어먹은 일



할머니의 분노를 사면서였다. (할머니의 말을 인용하여 객관성을 줌
 할머니의 말을 옮기자면, 나는 짐승만도 못한, 과자 한 조각에 삼

총을 팔아먹은, 천하에 무지막지한 사람 백정이었다.) 외할머니가 유일한 내 편이 되어 궁지에
 삼촌을 팔아먹은 나쁜 일을 했다는 생각

몰린 외손자를 감싸고 역성드는 바람에 할머니는 그때 단단히 비위가 상했던 것이다. 다음으로
 외할머니와 할머니의 갈등 관계 형성

두 분을 아주 갈라서게 만든 결정적인 계기는 전사 통지서를 받은 그 이튿날에 왔다. 먼저 복장
 국군 외삼촌의 죽음 시간 순서 : 전사 통지서 받은 다음 날 외할머니가 저주의 말을 퍼부음
 을 지른 쪽은 외할머니였다. 그날 오후도 (장대 같은 벼락불이 건지산 날망으로 푹푹 꽂히는 험
 산마루

한 날씨였는데,) 마루 끝에 서서 그 광경을 지켜보던 외할머니가 별안간 무서운 저주의 말을 퍼
 벼락이 치고 장대비가 내림

붓기 시작한 것이다.

별갱이(삼촌은 빨치산임→갈등)

“더 쏟아져라! 어서 한 번 더 쏟아져서 바웃새에 숨은 뿔갱이 마자 다 썰어 가그라! 나무 틈새
 바위 사이

기에 엎딘 뿔갱이 솟뎅이같이 짹싹 끄실러라! 한 번 더, 한 번 더, 옳지! 하늘님 고오맙습니다!”

소리를 듣고 식구들이 마루로 몰려들었으나 모두들 어리둥절해져서 외할머니를 말리는 사람
 할머니를 자극할까봐 걱정하지만 외할머니의 원한도 알기에 쉽사리 말리지 못함

이 없었다. 벼락에 맞아 죽어 넘어지는 하나하나의 모습이 눈에 선히 보인다는 듯이 외할머니는

더욱 기가 나서 빨치산이 득실거린다는 건지산에 대고 자꾸 저주를 쏟았다.

“저 늙다리 예펜네가 뒤질라고 환장을 혔다?” → 빨치산 아들을 둔 할머니의 반응

그러자 안방 문이 우당탕 열리면서 악의를 그득 담은 할머니의 얼굴이 불쑥 나타났다. 외할머
 니를 능히 필적할 만한 인물이 그제까지 집안 한쪽에 도사리고 있었음을 나는 뒤늦게 깨닫고 긴

장했다. → 상황을 인식하고 긴장한 '나'

(“여그가 시방 누 집인 종 알고 저 지랄이랴, 지랄이?” 방언 및 비속어 사용 → 현장감, 생동감

옆에서 흔들어 깨우는 바람에 갑자기 잠꼬대를 그친 사람처럼 외할머니는 명명한 눈길로 주

위를 잠깐 둘러보았다.) → 할머니의 호통에 조용해진 외할머니

(“보자 보자 허니께 참말로 눈꼴시어서 볼 수가 없네. 운혜를 웬수로 갚는다드니 그 말이 거그
 피란 온 외갓집 식구를 받아줌 외할머니
 를 두고 하는 말이고만. 올 디 갈 디 없는 신세 하도 불쌍혀서 들어앉혀 놓게로 인자는 아도 으
 놓으니 아이도 어른도

런도 몰라보고 갖인 야냥개를 다 부리네그랴. 미쳐도 곱게 미쳐야지, 그렇게 숭악시련 맘을 먹
 흉악한

으며는 땅대로 거그한티 날베락이 내리는 벅여.”) → 외할머니에 대한 할머니의 분노

당장 메어꽃을 듯한 기세로 상대방의 서슬을 다잡고 나더니 할머니는 사뭇 훈계조가 되었다.

“아아니, 거그가 그런다고 죽은 자석이 살어나고 살 사람이 그렇게 쉽게 죽을 성부른가? 어림
외삼촌 삼촌

반문도 없는 소리 빛감도 말어. 인명은 재천이했다고, 다아 저 타고난 명대로 살다가 가는 게여.
기대도 하지 말아

그러고 자석이 부모보답 먼저 가는 것은 부모 죄여. 부모들이 전생에 죄가 많았기 땠시 자석놈
외삼촌의 죽음이 외할머니 탓이라고 함 -> 외할머니가 분노하게 됨

을 앞시워 놓고는 뒤에 남어서 그 고통을 다아 감당하게 맹근 게여. 애시당초 자기 팔자소관이
할머니의 운명론적 세계관

그런 걸 가지고 누구를 탓하고 마찰 것이 없어. 낫살이 저만치 예순 줄에 앉어 있음시나 조께
부끄런 종도 알아야지.”

“그려. 나는 전생에 죄가 많어서 아덜놈 먼첩 보냈다 치자. 그럼 누구는 복을 헤어지게 짊어
지고 나와서 아덜 농사를 그 따우로 지었다냐?”
아들이 뻘갱이가 되었다는 뜻
하고 외할머니도 양칼지게 쏘이붙였다.

저놈으 예펜네 말하는 것 좀 보소이. 참말로 죽을라고 환장했능개비. 내 아델이 왜 어디가
아들 농사를 잘못 지었다는 말에 분노하는 할머니
어찌간디그려?”

“생각해 보면 알 것이구먼.”

“저 죽은 댁이 지사 지내 줄 놈 한나 없응게 남덜도 모다 그런 종 아는가 분디……”
제사지내 줄 사람이 없음 = 아들은 외삼촌 하나
“고만덜 혀 둬요!”

(“우리 순철이는 끈덕도 없다, 끈덕도 없어. 무신 일이 생겨야만 쇠이 시연헐 티지만 순철이
삼촌
가는 쏘내기 새도 요리조리 뚫고 땅길 아여.”) 삼촌이 무사할 것이라 믿는 할머니

“어따 구만덜 허라니께요!” 하고 아버지가 한 번 더 짜증을 부렸다.

- 윤흥길, 「장마」 -



핵심 정리

- 간래: 전후 소설, 중편 소설, 성장 소설
- 성격: 사실적, 상징적, 토속적, 샤머니즘적
- 주제: 이념 대립으로 빚어진 한 가족의 비극과 민족적 정서를 통한 갈등 극복 및 화해
- 시점: 1인칭 관찰자 시점
- 배경: 6·25전쟁 중 장마철, 어느 시골 마을
- 특징
 - 어린아이인 '나'의 서술로 객관적 거리를 유지함.
 - 방언을 사용하여 사건의 사실성을 높이고 토속적인 분위기를 냄.

전체 줄거리

6·25전쟁으로 서울에 살던 외할머니는 시집간 팔네 집으로 피난을 내려와 친할머니와 같이 살게 된다. 그러던 어느 날 외할머니는 국군 소위인 아들이 전사했다는 통지를 받고 그 충격으로 빨치산을 항해 저주를 퍼붓는다. 친할머니는 이를 빨치산으로 산속 생활을 하고 있는 자신의 아들을 향한 악담이라고 생각하여 노발대발하고, 두 할머니는 서로 반목하게 된다. 빨치산 소탕 작전이 대대적으로 시작되지만, 친할머니만은 짐쟁이의 말대로 아들의 생활을 굳게 믿으며 아들을 맞을 준비를 한다. 아들이 나타나리라고 예언된 날, 아들 대신 상처 입은 구령이 한 마리가 집 안으로 들어와 한바탕 소통이 벌어진다. 외할머니는 졸도한 할머니를 대신해 정성껏 구령이를 달래 보낸다. 깨어난 할머니는 외할머니와 화해하게 되고 얼마 후 숨을 거둔다.

이해와 감상

이 작품은 1973년 『문학과 지성』에 발표된 중편 소설로서, 국군을 아들로 둔 외할머니와 빨치산을 아들로 둔 친할머니 사이의 갈등과 화해의 과정을 어린 화자가 관찰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윤홍길이 이 소설을 발표한 시점은 이미 6·25로부터 20여 년의 세월이 흐른 뒤이다. 6·25 직후의 소설들은 전쟁을 겪은 인물들의 읊울한 심리와 현실적인 고통을 보여주거나, 반공 이데올로기로 무장한 주제를 전달하는 것이 대다수였다. 그러나 최인훈의 『광장』(60), 박경리의 『시장과 전장』(64)을 거치면서 전쟁을 바라보는 객관적인 거리가 확보되기 시작하였고, 「장마」에서는 이를 1인칭 관찰자 시점이라는 형식으로 구현하고 있다. 「장마」의 '나'는 초등학교 3학년생이다. 더 정확히 말한다면, 자신이 초등학교 3학년이었을 때를 회상하는 어른이다. 이 작품은 대부분 어린이의 시각과 사고에 따라 서술됨으로써, 어린 관찰자가 가질 수밖에 없는 시선의 한계를 통해 작품 속의 현실(전쟁의 실상)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다. 그러나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 부분에서는 어린아이로는 할 수 없는 사고를 함으로써, 자신이 어린 시절을 회상하고 있는 어른 화자임을 또한 암시한다. 따라서 이 소설은 1인칭 관찰자 시점을 사용하되, 어린아이와 어른의 이중 시각을 함께 드러낸다고 정리할 수 있다. 이 이중의 시각은 사건의 비극성을 객관화시킴과 동시에, 회상의 어조를 통해 작품에 감미로운 서정성까지 가미시킨다고 볼 수 있다.

이 작품에서 독자는 화자의 친할머니와 외할머니의 갈등과 대립을 통해 6·25의 비극을 느낀다. 외할머니는 국군을 아들로 둔 어머니라는 점에서 우익을, 친할머니는 빨치산을 아들로 둔 어머니라는 점에서 좌익을 응호한다. 실상 6·25는 이데올로기 대립으로 인해 동족 간에 벌어진 전쟁이다. 이데올로기 대립이 민족 간의, 혹은 인간 간의 유대 관계를 파괴시켰다는 점은 두 할머니의 대립을 통해 여실히 드러난다. 두 할머니는 각 진영이 주장하는 이데올로기를 알거나 이해할 수는 없는 사람들이다. 본래 사이가 좋았던 그들은 자식들이 서로 다른 편에 가담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서로 질시한다. 결국 두 노인의 대립은 이데올로기의 갈등이 아니라 혈육에 대한 사랑 때문이었다. 이는 그 당시 한국에 살았던 대다수의 민중이 느꼈던 문제일 것이다. 이 작품이 어린 화자를 내세워 전쟁의 실상에 대해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게 했던 것은 바로 이데올로기를 넘어선 혈육 간의, 민족 구성원 간의 문제를 다루고 싶었기 때문이다.

작가가 다루려 했던 것은 전통적인 인간관계의 파괴이며 동시에 그것의 극복이다. 이데올로기를 넘어 남북한이 협연으로 맺어진 한 민족임을 확인한다면, 전쟁으로 인한 상처는 극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두 할머니의 화해를 위한 도구로 이 소설에서 차용하고 있는 것은 ‘구렁이’이다. 작품의 말미에 구렁이가 나타나는데, 친할머니와 외할머니 모두 이것이 친삼촌의 혼백이라고 여긴다. 이는 ‘저주받은 사람이 죽으면 구렁이가 된다’는 우리나라 전래의 무속 신앙을 바탕으로 한 사고이다. 이 구렁이를, 친할머니를 대신해 외할머니가 배웅함으로써 두 노인 간의 화해가 이루어진다. 두 노파는 이데올로기가 아닌 본능적인 모성애 때문에 대립했던 것처럼, 비현실적인 샤머니즘을 통해 화해를 하게 된다. 다시 말해, 민족의 화해는 논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이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는 공통적 정서, 공동의 믿음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작가가 전달하려는 주제 의식이 부각된다. 작가는 전쟁의 상처를 치유할 방법으로서 보편적 정서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것을 민족 동질성 회복의 중요한 수단으로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구렁이 이외에 소설에서 또 하나의 상징으로 기능하는 것이 ‘장마’이다. 작품은 장마가 한창이었던 시기를 그 배경으로 한다. 작품 곳곳에 장마와 관련된 묘사가 삽입되며, 소설은 “정말 지루한 장마였다”라는 문장으로 끝난다. 작가는 혼돈과 갈등의 현실, 즉 6·25전쟁을 그칠 줄 모르는 장마에 비유하고 있는 것이며, 장마 모티프를 반복함으로써 상징적 의미를 떠맡게 한다.

핵심 판서 노트



관찰자

2026 수능특강 개념학습 07

나는 그 아저씨가 어떤 사람인지는 몰랐으나 내게는 꽤 고맙게 굴고 또 나도 그 아저씨가 꼭 옥희. 인칭 서술자. 신빙성 없는 서술자

아저씨에 대한 '나'의 호감

마음에 들었어요. 어른들이 저희끼리 말하는 것을 들으니까 그 아저씨는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

와 어렸을 적 친구라고요. 어디 먼 데 가서 공부를 하다가 요새 돌아왔는데 우리 동리 학교 교

사로 오게 되었대요. 또 우리 큰외삼촌과도 동무인데, 이 동리에는 하숙도 별로 깨끗한 곳이 없

고 해서 우리 사랑으로 와 계시게 되었다고요. 또 우리도 그 아저씨에게서 밥값을 받으면 살림

에 보탬도 좀 되고 한다고요.) => 아저씨에 대한 정보 및 우리집에 하숙하게 된 이유를 요약적으로 제시
→ 사건 전개의 필연성 부여

그 아저씨는 그림책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내가 사랑에 가면 그 아저씨는 나를 무릎에 앉히고
친절하고 자상한 아저씨의 행동. 그림책, 사탕은 옥희가 좋아하는 것들(아저씨의 호의)

그림책들을 보여 줍니다. 또 가끔 사탕도 주고요. 어느 날은 점심을 먹고 살그머니 사랑에 나가

아저씨에 대한 옥희의 호기심

보니까 아저씨는 그때에야 점심을 잡수어요. 그래 가만히 앉아서 점심 잡수는 걸 구경하고 있노

라니까 아저씨가

“옥희는 어떤 반찬을 제일 좋아하나?” 하고 물겠지요. 그래 삶은 달걀을 좋아한다고 했더니
'나'와 아저씨를 가깝게 해주는 소재

마침상에 놓인 삶은 달걀을 한 알 집어 주면서 나더러 먹으라고 합니다. 나는 달걀을 벗겨 먹으

면서

“아저씨는 무슨 반찬이 제일 맛나우?” 하고 물으니까 그는 한참이나 빙그레 웃고 있더니 “나
옥희를 위해 답을 생각하는 모습

두 삶은 달걀.” 하겠지요. 나는 좋아서 손뼉을 짧깍 짧깍 치고

옥희와 친해지고 싶은 마음

“아, 나와 같네. 그럼, 가서 어머니한테 알려야지.” 하면서 일어서니까 아저씨가 꼭 불들면서

당황한 아저씨(엄마를 의식하고 있음)

“그러지 말어.” 그러시지요. 그래도 나는 한번 맘을 먹은 다음엔 꼭 그대로 하고야 마는 성미

옥희의 성격을 직접적으로 제시

지요. 그래 안마당으로 뛰어 들어서면서

“어머니, 어머니, 사랑 아저씨두 나처럼 삶은 달걀을 제일 좋아한대.”

하고 소리를 질렀지요.

“떠들지 말어.” 아저씨를 배려하는 마음, 아저씨를 의식하는 어머니의 모습

하고 어머니는 눈을 흘기십니다.

그러나 사랑 아저씨가 달걀을 좋아하는 것이 내게는 씩 좋게 되었어요. 그다음부터는 어머니

가 달걀을 많이씩 사게 되었으니까요. 달걀 장수 노친네가 오면 한꺼번에 열 알도 사고 스무 알

아저씨에 대한 관심과 배려



도 사고 그래선 삶아서 아저씨 상에도 놓고 또 으레 나도 한 알씩 주고 그래요. 그뿐 아니라 아저씨한테 놀려 나가면 가끔 아저씨가 책상 서랍 속에서 달걀을 한두 알 꺼내서 먹으라고 주지요. 그래 그 담부터는 나는 아주 실컷 달걀을 많이 먹었어요. 나는 아저씨가 아주 좋았어요. 마 옥희가 아저씨를 좋아하는 계 는 외삼촌은 가끔 틀틀하는 때가 있었어요. 아마 아저씨가 마음에 안 드나 봐요. 아니, 그것보다 아저씨에 대한 외삼촌의 심리를 1인칭 관찰자가 추측 도 아저씨 상 심부름을 꼭 외삼촌이 하니까 그것이 하기 싫어서 그랬겠지요. 한번은 어머니와 외삼촌이 말다툼하는 것을 들었어요. 어머니가

“야, 또 어데 나가지 말고 사랑에 있다가 선생님 들어오시거든 상 내가야지.” 하고 말씀하시 내외해야 하는 엄마 대신 상 심부름을 하는 외삼촌 니까 외삼촌은 얼굴을 찡그리면서

“제길, 남 어데 좀 볼일이 있는 날은 반드시 끼니때에 안 들어오고 늦어지니…….” 하고 틀틀 하겠지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그러니 어짜갔니? 너밖에 사랑 출입할 사람이 어데 있니?”

“누님이 좀 상 들구 나가구려. 요새 세상에 내외하십니까!” 내외를 전근대적 인습으로 생각하는 외삼촌 어머니는 갑자기 얼굴이 빨개지시고 아무 대답도 없이 그냥 외삼촌에게 향하여 눈을 흘기셨 속마음을 들킨 어머니 외삼촌을 나무라는 어머니의 표정 습니다. 그러니까 외삼촌은 웃으면서 사랑으로 나갔지요. 어머니를 놀리는 외삼촌의 모습 (중략)

“옥희야.” 하고 또 물으십니다.

“응?”

（옥희만 바라보고 아저씨에 대한 마음을 정리하려는 어머니 “옥희는 언제나 언제나 내 곁을 안 떠나지. 옥희는 언제나 언제나 엄마하구 같이 살지. 옥희 엄마는 늙어서 꼬부랑 할미가 되어두 그래두 옥희는 엄마하구 같이 살지. 옥희가 유치원 졸업하 구 또 소학교 졸업하구, 또 중학교 졸업하구, 또 대학교 졸업하구, 옥희가 조선서 제일 훌륭한 사람이 돼두 그래두 옥희는 엄마하구 같이 살지. 응! 옥희는 엄마를 열만큼 사랑하나?”）

“이만큼.” 하고 나는 두 팔을 짹 벌리어 보였습니다.

“응 열만큼? 응 그만큼! 언제나 언제나 옥희는 엄마를 사랑하지. 그리구 공부두 잘하구 그리 구 훌륭한 사람이 되구…….”

나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리는 것으로 보아 어머니가 또 올까 봐 겁이 나서 어머니를 걱정하는 옥희의 마음

“엄마, 이만큼 이만큼.” 하면서 두 팔을 짹짝 벌리었습니다.

어머니를 위로하려는 옥희의 과장된 표현

어머니는 울지 않으셨습니다.

“음, 옥희 엄마는 옥희 하나면 그뿐이야. 세상 다른 건 다 소용없어, 우리 옥희 하나면 그만이

옥희를 위한 모정, 아저씨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포기하려는 어머니
야. 그렇지, 옥희야.”

“응!”

어머니는 나를 당기어서 꼭 껴안고 내가 숨이 막혀 들어올 때까지 자꾸만 껴안아 주었습니다.

옥희에 대한 애정 표현, 내적 갈등을 극복하려는 다짐

그날 밤 저녁을 먹고 나니까 어머니는 나를 불러 앉히고 머리를 새로 빗겨 주었습니다. 땡기

도 새 땡기를 드려 주고 바지, 저고리, 치마 모두 새것을 꺼내 입혀 주었습니다.

“엄마, 어디 가?” 하고 물으니까

“아니.” 하고 웃음을 띠면서 대답합니다. 그러더니 풍금 옆에서 새로 다린 하얀 손수건을 내

아저씨의 편지에 대한 답장이 들어 있음

리어 내 손에 쥐여 주면서

“이 손수건 저 사랑 아저씨 손수건인데 이것 아저씨 갖다드리고 와, 응. 오래 있지 말고 손수
건만 갖다드리고 이내 와, 응.” 하고 말씀하십니다.

손수건을 들고 사랑으로 나가면서 나는 그 손수건 접이 속에 무슨 발각발각하는 종이가 들어
있는 것처럼 생각되었습니다마는 그것을 펴 보지 않고 그냥 갖다가 아저씨에게 주었습니다.

{ 아저씨는 방에 누워 있다가 벌떡 일어나서 손수건을 받는데 웬일인지 아저씨는 이전처럼 다

보고 빙그레 웃지도 않고 얼굴이 몹시 새파래졌습니다. 그러고는 입술을 질근질근 깨물면서 말

한마디 아니하고 그 수건을 반더군요. } 손수건에 어머니의 편지가 있을 것이라 예상함

나는 어째 이상한 기분이 돌아서 아저씨 방에 들어가 앉지도 못하고 그냥 되돌아서서 안방으
어린 서술자의 미묘한 심리를 드러냄

로 들어왔지요. 어머니는 풍금 앞에 앉아서 무엇을 그리 생각하는지 가만히 있더군요. 나는 풍

금 옆에 와서 가만히 앉았지요. 이윽고 어머니는 조용조용히 풍금을 타십니다. 무슨 곡조인지는

몰라도 어째 구슬프고 고즈넉한 곡조야요.

아저씨의 마음을 받아들일 수 없는 어머니의 슬픔

밤이 늦도록 어머니는 풍금을 타셨습니다. 그 구슬프고 고즈넉한 곡조를 계속하고 또 계속하

간접적 표현으로 어머니의 마음을 드러냄(도치)
면서.

- 주요섭, 「사랑손님과 어머니」 -



핵심 정리

- 갈래: 현대 소설, 단편 소설
- 성격: 서정적, 낭만적
- 시점: 1인칭 관찰자 시점
- 배경: 1930년대 어느 시골 마을
- 주제: 자유로운 사랑의 감정과 봉건적 윤리관 사이에서 갈등하는 어머니와 사랑손님의 사랑과 이별
- 특징
 -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야기를 전개함.
 - 인물의 대화와 행동을 1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제시하여 인물들의 심리가 간접적으로 드러남.
 - 어린 옥희의 시선을 통해 어머니와 사랑손님의 사랑과 둘 사이의 미묘한 심리를 그림.

전체 줄거리

홀로 된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는 ‘우리 집’에 생전에 아버지의 친구였다는 아저씨가 하숙을 하게 된다. 아저씨는 이 동리 학교 선생님으로 온 것이다.

아버지가 쓰던 사랑에 기겨하게 된 아저씨는 ‘나’와 금방 친해진다. 아버지 없는 ‘나’로서는 아저씨가 아버지가 되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가지게 된다. 그래서 어느 날, 아저씨에게 불쑥 그 말을 꺼냈더니 아저씨는 까닭 없이 얼굴을 붉히며 ‘못쓴다’고 말하는 목소리가 뜯리었다. 또, 어머니를 기쁘게 하려고 유치원에서 살짝 뽑아 온 꽃을 아저씨가 갖다주라고 하였다며 어머니에게 주었을 때 어머니도 얼굴이 빨개진다.

어느 날 밤, 어머니는 달빛 속에서 아버지의 옷을 장롱 속에서 꺼내 보고 있었다. 아저씨나 어머니는 ‘나’로서는 잘 알 수 없으나 모두 깊은 시름에 빠져 있는 듯하다. 어머니가 종이가 든 아저씨 손수건을 ‘나’를 통하여 전한 며칠 뒤 아저씨는 예쁜 인형을 ‘나’에게 주고 영영 집을 떠나 버린다. 어머니는 ‘나’의 손을 잡고 뒷동산으로 올라가 아저씨가 탔을 기차를 멀리 바라본다. 요즈음 어머니가 가끔 치시던 풍금 뚜껑은 다시 닫히고 찬송가 책갈피에 끼워져 있던 마른 꽃송이도 버려진다. 매일 사던 달걀도 이젠 사지 않게 되었다.

이해와 감상

1935년 〈조광(朝光)〉에 발표된 단편 소설. 여섯 살 난 어린아이의 동심의 눈을 통해 과부인 젊은 어머니와 남편의 옛 친구인 사랑방 손님 사이의 미묘한 연정과 심리적 갈등을 선명하게 부각시킨 작품이다.

어린 소녀(나)를 관찰자 역할로 맡김으로써 자칫 빠지기 쉬운 통속적 사랑을 신선했던 각도에서 보게 하였다. 특히 이 작품은 1인칭 관찰자 시점이 성공적으로 사용된 작품으로서 시점이 소설의 다른 요소에 비해 결코 뒤지지 않는 문학적 장치임을 보여 준다.

이 작품은 어머니와 아저씨 사이의 연정과 갈등을 섬세하게 나타낸 소설로, 통속적인 내용을 어린아이의 맑고 깨끗한 눈으로 순수하게 그려 낸 작품이다. 천진난만한 ‘나’의 행동이 두 어른 사이의 심리적 거리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며, 어른들의 마음속에 숨겨진 어렴풋한 그리움과 망설임을 어린아이의 감각과 직관으로 설명하게 포착하는 등 아이의 시선을 절묘하게 활용한 소설이다. 물론, 화자가 어린 여자애이기 때문에 서술과 묘사가 표면적이고 즉물적(即物的)인 선에 머물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불충분함이 이 소설의 예술성을 극대화한다.

즉, 이 작품의 기법은 ‘분명히 드러내기’보다는 ‘의미의 감추기’가 핵심적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어머니와 사랑손님의 감정을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장면에서 ‘모르겠다’라는 말을 반복 한다든지, 지연(遲延) 효과를 노린다든지 하는 것들은 해당 장면이 암시하는 의미를 드러내면서 동시에 감추는 고도의 예술적 기법이라 할 수 있다.

핵심 판서 노트

